

2018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공개문화재분과 회의록

- 일 시 : 2018. 01. 23.(화)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 석 자 : 윤인석(위원장), 김이순, 부길만, 송기한, 신안준,
안창모, 오용섭, 한태식(이상 8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248호 「서울 대한의원」 주변 현상변경	
2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현상변경	
3	2018년도 근대문화재 보수정비분야 국고보조사업 추진	

【검토사항】

4	현대만화 「로빈슨 크루소」 문화재 등록 검토	
5	현대만화 「흥부와 놀부」 문화재 등록 검토	
6	현대만화 「어린 예술가」 문화재 등록 검토	
7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보존·활용종합정비계획(재정비)	
8	등록 제707호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현상변경	

【보고사항】

9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현상변경 － 사적 제442호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현상변경	
10	항일독립유산 문화재 등록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심 의 사 항

1. 사적 제248호 「서울 대한의원」 주변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48호 「서울 대한의원」 주변에서 조경시설 등을 정비하는 목적으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대한의원」 주변에서 조경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한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서울대 메디컬허브(주)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대한의원 (사적 제248호, '76.11.16 지정)

-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21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21
- ※ 현상변경 허용기준 : 1구역(개별심의)
- 신청내용 : 조경시설 등 정비

<관람로 포장 개선>

- 당초) 고압블럭, 점토블럭 변경) 인조화강석블럭 766.6㎡

<조경수 식재>

- 교 목 : 수수꽃다리 7주, 배롱나무 1주
- 관 목 : 회양목, 산철쭉, 백철쭉 : 1,090주
- 지피류 : 맥문동 4,400본

<시설물 정비>

- 등 의 자 (벤치) : 42개소 교체
- 파 고 라 : 철거 1개소, 교체 1개소

라. 현지조사 의견 : ○○○, ○○○, ○○○(2018.01.15)

- 대한의원 주변 조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시한 사업계획으로는 조경계획(동선, 수종, 재료 등)의 당위성과 문화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대한의원 북측에 신축중인 건물의 지상부 조경계획(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대한의원 부속건물 기초부의 전시계획 포함)과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경관 및 신축건물과 조화되는 조경계획이 필요
- 출석 8명/ 부결 8명

2.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보호구역 내에서 광장을 정비 할 목적으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창원 진해우체국」 보호구역에서 광장 정비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창원시장(도시재생과)
- (2) 대상문화재명 : 창원 진해우체국 (사적 제291호, '81.09.25 지정)
 -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0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대천동 중원로타리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 신청내용 : 광장 정비

< 포 장 공 >

 - 보도블록 포장 427㎡, 자연석판재 포장(회색) 286㎡,
 - 미끄럼방지 포장 1,230 ㎡, 가로수 보호판 설치 12EA

< 우 수 공 > L형측구 127m, 우수받이 28EA, 우수관 교체 148m

< 시설물공 > 연식벤치 7EA, 이동식블라드 6EA

< 식 재 공 > 잔디매트 60 ㎡(광장내), 잔디식재 83 ㎡(광장내)

라. 현지조사 의견 : ○ ○ ○, ○ ○ ○, ○ ○ ○ (2018.01.16)

- 진해 구시가지 도심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진해우체국 주변의 차로, 보행로, 우수관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경관적 측면에서 문화재와 인접한 차로와 보행로의 포장 재질, 색상, 패턴 등은 기존 상태를 유지하여 화강석 바닥(판석)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이밖에 원형광장을 중심으로 한 방사선 도로의 성격이 우리나라 근대기 계획도시로서의 진해가 갖는 중요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 방향의 도로가 통일성을 갖는 계획이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의견대로 함
- 출석 8명/ 조건부가결 8명

3. 2018년도 근대문화재 보수정비분야 국고보조사업 추진

가. 제안사항

2018년도 사적(근대분야) 및 등록문화재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문화재보수정비,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보수정비 추진계획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8년도 사적(근대분야) 및 등록문화재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문화재보수정비,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보수정비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대상 선정 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예산평가 회의를 거쳐 사업 내용과 예산 확정함
 - 1차 평가회의 : '17.08.08(수) / ○○○, ○○○, ○○○, ○○○
 - 2차 평가회의 : '17.12.12(화) / ○○○, ○○○, ○○○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근대문화재과장, 안전기준과장)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8년 1월 ~ 사업 종료 시 까지
- 사업대상

<문화재보수정비 - 근대문화재과>

- 총 합 계 : 150건, 22,747백만원 (국비12,113백만원, 지방비10,634백만원)
- 근 대 사 적 : 16건, 3,695백만원 (국비 2,587백만원, 지방비 1,108백만원)
 - 등록문화재 : 134건, 19,052백만원 (국비 9,526백만원, 지방비 9,526백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전기,소방,방법) 구축 - 안전기준과>

- 총 합 계 : 12건, 360백만원 (국비 197백만원, 지방비 163백만원)
- 근 대 사 적 : 4건, 124백만원 (국비 79백만원, 지방비 45백만원)
 - 등록문화재 : 8건, 236백만원 (국비 118백만원, 지방비 118백만원)

(3) 사업추진방법

- 문화재청 :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지침 시달, 설계검토·승인, 기술지도 등
- 지방자치단체 : 설계도서작성, 사업시행, 사업감독 등

※ 중요 사안은 단위사업별로 문화재위원회의 별도 심의 후 사업 시행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8명/ 원안가결 8명

2018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사적(근대분야), 등록문화재] 세부현황

(단위 : 천원)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8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서울	서대문구	사적 324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보수 위한 사전설계, 담장의 구조 변위계측	28,000	12,000	40,000
서울	성북구	등록 384	동덕여자의숙 태극기	태극기 1점 원형복원 및 보존처리	21,000	21,000	42,000
서울	용산구	사적 521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배수로 및 석축정비, 성당 주변 정비(조형물 이전,조경)	112,000	48,000	160,000
서울	종로구	사적 497	서울 이화장	통일당 및 석축, 배수로,관람로,조경수,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507,500	217,500	725,000
서울	종로구	사적 282	서울 중앙고등학교 서관	외벽 조적 및 줄눈 보수	51,100	21,900	73,000
서울	종로구	사적 438	안국동윤보선가	산정채-해체보수, 안채-정밀안전진단, 광채-지붕및벽체보수, 안사랑채-고색가칠	441,000	189,000	630,000
서울	종로구	사적 438	안국동윤보선가	문화재 기록화 사업	35,000	15,000	50,000
서울	종로구	사적 281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목재 창호 원형보수,누수 지붕해체 보수	602,000	258,000	860,000
서울	종로구	사적 278	구 서울대학교 본관	문화재 기록화 사업	35,000	15,000	50,000
서울	종로구	사적 465	서울 경교장	문화재 기록화 사업	30,800	13,200	44,000
서울	종로구	사적 171	서울 고종 어극 40년 창경기념비	지붕 보수 및 양성 설치 등	35,000	15,000	50,000
서울	종로구	사적 213	서울 우정총국	울타리 설치 및 정비	32,200	13,800	46,000
서울	종로구	등록 673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 캠프기념관	보수-굴뚝, 외벽, 누수계단	88,500	88,500	177,000
서울	종로구	등록 673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 캠프기념관	문화재 기록화 사업	22,500	22,500	45,000
서울	종로구	등록 2	서울 구 경기고등학교	보수(휴게실) - 창호, 벽체균열, 지반보강	47,300	47,300	94,600
서울	종로구	등록 2	서울 구 경기고등학교	문화재 기록화 사업	23,500	23,500	47,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8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서울	종로구	등록 93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 생활관	포치 방수 및 계단 보수	5,000	5,000	10,000
서울	종로구	등록 84	서울 원서동 교회동 가옥	미장보수 및 지붕 기와고르기	20,000	20,000	40,000
서울	종로구	등록 584	서울 경기상업고등학교 본관 및 청송관	보수위환사전설계, 보수-지붕홈통,벽체누수 예방	75,000	75,000	150,000
서울	종로구	등록 584	서울 경기상업고등학교 본관 및 청송관	문화재 기록화 사업	27,000	27,000	54,000
서울	종로구	등록 672	서울 배화학원 캐롤라이나관	보수위환사전설계, 정비-배수로	32,500	32,500	65,000
서울	종로구	등록 672	서울 배화학원 캐롤라이나관	문화재 기록화 사업	21,000	21,000	42,000
서울	종로구	등록 375	서울 구 국군기무사령부 본관	문화재 기록화 사업	22,000	22,000	44,000
서울	종로구	등록 586	서울 구 공간사옥	문화재 기록화 사업	22,500	22,500	45,000
서울	종로구	등록 357	서울 명륜동 장면 가옥	미장 및 선홈통보수, 도장면 보수	4,300	4,300	8,600
서울	중구	사적 252	서울 약현성당	보수-균열(벽,천정),창호 보존처리-기둥석재	84,000	36,000	120,000
서울	중구	등록 402	서울 구 신아일보사 별관	마감재 원형 보수(함석), 옥상방수, 계단 보수	95,000	95,000	190,000
서울	중구	등록 3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 심슨기념관	목재창호 도장공사	3,500	3,500	7,000
서울	중랑구	등록 691-7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오재영(吳載泳) 묘소	잔디보식, 봉분 보수, 문화재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	11,000	11,000	22,000
서울	중랑구	등록 691-6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서동일(徐東日) 묘소	잔디보식, 봉분 보수, 문화재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	13,000	13,000	26,000
서울	중랑구	등록제 691-5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서광조(徐光朝) 묘소	잔디보식, 봉분 보수, 문화재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	7,000	7,000	14,000
서울	서울	등록 687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딜쿠샤 원형복원정비	1,650,000	1,650,000	3,300,000
부산	중구	등록 573	대한성공회 부산주교좌성당	내부 균열보수, 종탑 사다리계단 교체 보수, 외벽 보수	31,500	31,500	63,000
대구	남구	등록 251	대구 대봉배수지	구점합정세척등 보존처리	7,500	7,500	15,000
대구	중구	사적 290	대구 계산동성당	문화재 기록화 사업	47,600	20,400	68,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8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대구	중구	사적 443	구 도립대구병원	기와 고르기, 옥탑부 누수보수, 진입부 외부 세척	154,000	66,000	220,000
대구	중구	등록 5	구 대구사범학교 본관과 강당	처마흙통 보수정비, 외벽 지의류 제거	20,000	20,000	40,000
광주	서구	등록 681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프레디관	외부 창호 보수	320,000	320,000	640,000
대전	중구	등록 643	대전 대흥동성당	구조안전진단용역, 보수를 위한 사전설계용역(구조보강, 균열 및 마감재 보수)	35,000	35,000	70,000
울산	울주군	등록 103	울산 언양성당과 사제관	노후지붕도장	20,000	20,000	40,000
경기	김포시	등록 542	구 김포성당	문화재 기록화 사업	25,000	25,000	50,000
경기	부천시	등록 537	토끼와 원숭이	토끼와 원숭이' 34면(1권)에 대한 보존방향 연구, 탈산, 보존처리	5,000	5,000	10,000
경기	수원시	등록 597	구 수원문화원	외벽 표면 오염물 및 페인트 제거, 균열부 및 줄눈 보수	22,500	22,500	45,000
경기	수원시	등록 598	구 수원시청사	벽체 균열부 및 줄눈보수, 냉쿨식물 제거 및 바닥정비	12,500	12,500	25,000
경기	양평군	등록 594	양평 지평양조장	양조장 해체 보수	300,000	300,000	600,000
경기	의왕시	등록 418	협계 증기기관차 13호	문화재 보존용 캐노피 설치, 파손 창문 보수, 부식방지 처리	35,500	35,500	71,000
경기	파주시	등록 78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관람데크 보수, 난간 보수	30,500	30,500	61,000
경기	포천시	등록 271	구 포천성당	보호책 설치	22,500	22,500	45,000
경기	포천시	등록 578	포천 방어벙커	벙커 정밀실측 기록화조사, 구조 안전진단, 문화재정비 사업(보호 팬스, 벙커, 출입문, 배수로 설치),위해수목 제거, 철근경화 처리	45,000	45,000	90,000
강원	고성군	등록 143	고성 합죽교	합죽교 기록화 사업	25,000	25,000	50,000
강원	고성군	등록 143	고성 합죽교	합죽교 정밀안전진단	35,000	35,000	70,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8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강원	동해시	등록 456	동해 구 삼척개발 사택과 합숙소	보수 위한 사전설계, 보존 활용 종합정비계획 수립, 누수현상 임시 응급조치	55,000	55,000	110,000
강원	삼척시	등록 46	삼척 도계역 급수탑	급수탑 보수, 문화재안내판 설치	25,000	25,000	50,000
강원	철원군	등록 22	철원 노동당사	문화재 기록화 사업	20,000	20,000	40,000
강원	철원군	등록 22	철원 노동당사	보존 활용 종합정비계획 수립, 보수 정비 위한 사전설계, 구조 모니터링, 누수 방지시설 보수	145,000	145,000	290,000
강원	철원군	등록 137	구 철원 제2금융조합 건물 터	문화재 기록화 사업	10,000	10,000	20,000
강원	철원군	등록 24	철원 얼음창고	문화재 기록화 사업	10,000	10,000	20,000
강원	철원군	등록 25	철원 농산물검사소	문화재 기록화 사업	20,000	20,000	40,000
강원	철원군	등록 137	구 철원 제2금융조합 건물 터	배수로 설치	20,000	20,000	40,000
강원	춘천시	등록 54	춘천 죽림동 주교좌성당	경관조명 시설	7,500	7,500	15,000
강원	춘천시	등록 161	춘천 소양로성당	옹벽보수	22,500	22,500	45,000
강원	태백시	등록 111	태백 장성이종교	문화재 정밀안전진단	9,625	9,625	19,250
강원	태백시	등록 21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	정밀안전진단	8,800	8,800	17,600
강원	홍천군	등록 108	구 홍천군청	문화재 기록화 사업	25,000	25,000	50,000
충북	제천시	등록 65	제천 염연초생산조합 구 사옥	문화재 기록화 사업	20,000	20,000	40,000
충북	진천군	등록 58	진천 덕산양조장	정밀안전진단및 보수사전설계	15,000	15,000	30,000
충북	충주시	등록 683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보수 위한 사전설계	30,000	30,000	60,000
충남	공주시	등록 232	공주 금강철교	문화재 기록화 사업	25,000	25,000	50,000
충남	논산시	등록 42	구 강경성결교회 예배당	벽체 원형보수, 마루 보수, 배수로 설치	12,500	12,500	25,000
충남	논산시	등록 650	강경성당	노후 지붕 해체보수, 성가대 복원	210,000	210,000	420,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8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충남	보령시	등록 305	보령 청소역	문화재 기록화 사업	20,000	20,000	40,000
충남	예산군	등록 627	예산 향천사 괘불도 및 오여래·사보살·팔금강도	문화재 12점(사보살도 4점, 팔금강도 8점)에 대한 보존처리	50,000	50,000	100,000
충남	예산군	등록 473	예산 수덕사 만공탑	문화재 기록화 사업	15,000	15,000	30,000
전북	군산시	등록 600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건축물 구조보강	250,000	250,000	500,000
전북	군산시	등록 64	군산 동국사 대웅전	문화재 경관조명(동국사 대웅전)	30,000	30,000	60,000
전북	군산시	등록 183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정비-마당배수및포장, 수목 전정	52,500	52,500	105,000
전북	군산시	등록 184	군산 해망굴	해망굴 세척 및 도장공사, 타일 보수	30,000	30,000	60,000
전북	군산시	등록 208	군산 구 임피역	문화재 기록화 사업	20,000	20,000	40,000
전북	김제시	등록 403	김제 부거리 옹기가마	가마 보수 및 보호각 정비	150,000	150,000	300,000
전북	완주군	등록 221	완주 구 삼례양수장	보수위환사전설계,지붕 누수응급조치	11,000	11,000	22,000
전북	완주군	등록 579	구 만경강 철교	보수 - 구조보강, 플랜지 및 리벳	490,000	490,000	980,000
전북	익산시	사적 318	익산 나바위성당	사제관 보수 복원, 1사무실 권역 정비	291,900	125,100	417,000
전북	익산시	등록 179	원불교 익산성지	문화재 기록화 사업	75,000	75,000	150,000
전북	익산시	등록 179	원불교 익산성지	공회당 지붕 보수	40,000	40,000	80,000
전북	익산시	등록 263	익산 함라마을 옛 담장	담장 보수정비	15,000	15,000	30,000
전북	익산시	등록 210	익산 구 춘포역사	보존활용종합정비계획 수립, 보수-지붕,창호,도장등	50,000	50,000	100,000
전북	익산시	등록 209	익산 주현동 구 일본인 농장사무실	외벽 및 지붕보수	100,000	100,000	200,000
전북	전주시	사적 288	전주 전동성당	사적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99,400	42,600	142,000
전북	전주시	등록 172	전주 신흥고등학교 강당과 본관 포치	보수-지붕,지하층벽면 정비-배수로설치	65,000	65,000	130,000
전북	정읍시	등록 366	정읍 상학마을 옛담장	담장 보수	86,000	86,000	172,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8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전북	정읍시	등록 214	정읍 관청리 근대 한옥	지붕 해체 보수	50,000	50,000	100,000
전북	정읍시	등록 276	정읍 나용군 생가와 사당	보존활용종합정비계획 수립	25,000	25,000	50,000
전북	진안군	등록 191	진안 강정리 근대 한옥	원형복원, 수장재 및 전기통신 복구등	47,500	47,500	95,000
전남	강진군	등록 264	강진 한골목 옛 담장	담장 보수 정비	250,000	250,000	500,000
전남	고흥군	등록 660	고흥 소록도 마리아노와 마가렛 사택	균열보수, 배수로 설치, 수목 전정	20,000	20,000	40,000
전남	고흥군	등록 659	고흥 소록도 병사성당	보존 활용 종합정비계획 수립	250,000	250,000	500,000
전남	고흥군	등록 70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식량창고	구조안전계측및모니터링 보수-지붕,목재창호,조적벽체	75,000	75,000	150,000
전남	고흥군	등록 73	고흥 소록도 구 녹산초등학교 교사	보수-방수,실내 보수, 기초보강, 정비-마당, 배수시설, 전정 등	77,500	77,500	155,000
전남	고흥군	등록 663	고흥 소록도 한센인 생활 유품	상태조사 및 분석, 보존처리	10,100	10,100	20,200
전남	고흥군	등록 74	고흥 소록도 구 성실중고등성경학교 교사	마당 정비, 배수시설, 수목정비	45,000	45,000	90,000
전남	광양시	등록 223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관 관사	수목 이식, 담장 보수	50,000	50,000	100,000
전남	광양시	등록 341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원형복원-기단,마루,목조벽체 보수-부식목,지붕,흙벽, 천정등 정비-배수로	100,000	100,000	200,000
전남	구례군	등록 121	구례 구 방광국민학교 교사	문화재 해체 및 가설공사	157,000	157,000	314,000
전남	나주시	등록 34	구 나주경찰서	구조안전진단용역, 보강과 보수 위한 사전설계	25,000	25,000	50,000
전남	나주시	등록 44	나주 노안성당	흙통 보수, 마루 보수	50,000	50,000	100,000
전남	목포시	등록 114	목포 양동교회	트러스 보강, 실내 원형복원	30,000	30,000	60,000
전남	목포시	등록 513	목포 천주교 구 교구청	보수-지하층보수, 균열부,도장, 외벽 발수	50,000	50,000	100,000
전남	목포시	등록 640	목포 문태고등학교 본관	보존활용종합정비계획 수립,도면전산화,문화재 안내판설치	75,000	75,000	150,000
전남	목포시	등록 62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	보수-발코니,지붕기와, 창호, 원형복원-화강석벽체	29,000	29,000	58,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8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전남	보성군	등록 226	보성 구 별교금융조합	외벽 바탕보수 및 도장	10,000	10,000	20,000
전남	순천시	등록 123	순천 매산중학교 매산관	보수 위한 사전설계	30,000	30,000	60,000
전남	순천시	등록 224	순천 별량농협 창고	보수 위한 사전설계	15,000	15,000	30,000
전남	신안군	등록 362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	보수-퇴수로,갑문, 정비-작업로사리부설	343,600	343,600	687,200
전남	여수시	등록 31	여수 구 청년회관	구조안전진단, 보수 위한 사전 설계	55,000	55,000	110,000
전남	여수시	등록 116	여수 마래 제2터널	터널 점검,낙석 위험석 제거,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	87,500	87,500	175,000
전남	여수시	등록 116	여수 마래 제2터널	보존 활용 종합정비계획 수립	25,000	25,000	50,000
전남	여수시	등록 32	여수 구 애양원교회	철거-경사로,창고, 관리실 원형복원-외부계단 보수-노출벽체보수,외부 창호	96,000	96,000	192,000
전남	여수시	등록 367	여수 사도·추도마을 옛 담장	담장보수	10,000	10,000	20,000
전남	영광군	등록 678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장남댁 행랑채 해체보수	225,000	225,000	450,000
전남	영광군	등록 678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삼남댁해체보수	300,000	300,000	600,000
전남	장흥군	등록 130	장흥 예양리 일본식 가옥	보수 위한 사전 설계	1,700	1,700	3,400
전남	장흥군	등록 131	장흥 기양리 일본식 가옥	지붕 보수	13,000	13,000	26,000
전남	화순군	등록 274	화순 오지호 생가	보존 활용 종합정비계획 수립	25,000	25,000	50,000
전남	화순군	등록 275	화순농협 동부지점	누수 구조부 보수	45,000	45,000	90,000
경북	문경시	등록 304	문경 구 가은역	누수 지붕 해체보수	45,000	45,000	90,000
경북	안동시	등록 49	안동역 급수탑	보수-사다리계단,창문, 출입문,우물 덮개 보수	16,000	16,000	32,000
경북	영천시	등록 50	영천역 급수탑	보수-급수탑구조,조명, 정비-마당배수개선,석축 ,지장목 및 울타리 정비,문화재 안내판 등	109,000	109,000	218,000
경북	영천시	등록 254	영천 구 화룡교	구 화룡교 정밀안전진단	15,000	15,000	30,000
경북	청도군	등록 293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	보수 위한 사전 설계	11,000	11,000	22,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8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경남	고성군	등록 258	고성 학동마을 옛 담장	노후 담장 보수정비	50,000	50,000	100,000
경남	거제시	등록 277	거제 학동 진석중 가옥	노후 담장 보수정비	31,000	31,000	62,000
경남	거제시	등록 277	거제 학동 진석중 가옥	보수 - 장판지, 부식목, 벽체	25,000	25,000	50,000
경남	의령군	등록 365	의령 오운마을 옛 담장	노후 담장 보수정비	100,000	100,000	200,000
경남	진주시	등록 154	진주 옥봉성당	성당 창호도색	10,000	10,000	20,000
경남	창녕군	등록 145	창녕 남지철교	문화재 기록화 사업	35,000	35,000	70,000
경남	창원시	등록 463	백두산함 돛대	특정임업시험, 도료분석	4,500	4,500	9,000
경남	창원시	등록 194	구 진해요항부 사령부	지붕 보수, 외벽 세척 및 발수처리	50,000	50,000	100,000
경남	창원시	등록 197	구 진해요항부 병원	지붕 보수, 벽체 세척 및 발수처리	135,000	135,000	270,000
제주	제주	등록 410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	외벽 방수, 시설 보수, 세면장 복원, 마감재 보수	200,000	200,000	400,000
제주	제주	등록 410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	문화재 기록화 사업	25,000	25,000	50,000
제주	제주	등록 409	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	문화재 기록화 사업	25,000	25,000	50,000
제주	제주	등록 409	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	보수 위한 사전설계	20,000	20,000	40,000
제주	제주	등록 156	서귀포 천제연 관개수로	문화재 기록화 사업	15,000	15,000	30,000
제주	제주	등록 38	남제주 강병대교회	문화재 기록화 사업	25,000	25,000	50,000
제주	제주	등록 317	제주 송악산 외륜 일제 동굴진지	입구 보호책, 안내판 설치	70,000	70,000	140,000
제주	제주	등록 309	제주 서우봉 일제 동굴진지	입구 보호책, 안내판 설치	86,900	86,900	173,800
제주	제주	등록 308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내부 모니터링, 내부 로드뷰 기록화	110,000	110,000	220,000
제주	제주	등록 308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소나무 제선충 고사목 제거 및 예방약 주사	26,675	26,675	53,350
제주	제주	등록 307	제주 어승생악 일제 동굴진지	입구 보호책 및 붕괴 방지시설, 토치카 내부보수, 문화재 안내판 설치	100,000	100,000	200,000
제주	제주	등록 306	제주 사라봉 일제 동굴진지	진지 보호책 설치 및 수목정비, 안내판 설치	43,000	43,000	86,000

2018년도 문화재 재난안전 국고보조사업 [근대사적 및 등록 분야] 세부현황

☐ **전기, 소방, 방법 분야**

(단위:천원)

시도	시군구	지정별		문화재명	분야	확정액		
		종목	지정번호			국비	지방비	합계
서울	서대문구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전기	20,000	20,000	40,000
서울	종로구	사적	제279호	구공업전습소본관	방법	28,000	12,000	40,000
서울	종로구	사적	제438호	안국동윤보선가	방법	28,000	12,000	40,000
서울	종로구	등록	제230호	서울 혜화동 성당	소방 (사전설계)	10,000	10,000	20,000
인천	중구	사적	제287호	인천 답동성당	방법	2,800	1,200	4,000
강원	강릉시	등록	제457호	강릉 임담동성당	방법	9,000	9,000	18,000
강원	철원군	등록	제22호	철원 노동당사	방법	11,480	11,480	22,960
충북	옥천군	등록	제7호	옥천성당	소방	30,500	30,500	61,000
전북	장수군	등록	제629호	백용성역 『조선글화엄경』	방법	5,000	5,000	10,000
전남	광양시	등록	제341호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소방, 방법	17,500	17,500	35,000
전남	광양시	등록	제223호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소방, 방법	25,000	25,000	50,000
경북	청송군	등록	제497호	청송 소류정	방법	10,000	10,000	20,000

검 토 사 항

4. 「현대만화 ‘로빈슨 크루소」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현대만화 ‘로빈슨 크루소」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개인 소장자가 등록 신청한 유물인 「현대만화 ‘로빈슨 크루소」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제작 년대	제작자	소유자	소재지	비고
현대만화 ‘로빈슨 크루소’	2권	142×181mm, 139×184mm / 32면	쟁지	1952년	(미상)	○ ○ ○	○ ○ ○	

(3) 추진경과

- 문화재 등록 신청(‘16. 4. 26.)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7. 11. 24.)

(4)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 (2017.11.24.)

- 위 책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외국의 유명 소설을 그림을 넣어 짧게 설명해낸 것으로 내용적으로 우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문화재로 등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 ○ ○ (2017.11.24.)

- 조선아동문화협회에서 출간한 그림애기책 시리즈로 초판은 1947년 아협 그림애기책 제8집으로 출간되었음. 1952년에 출간된 재판본으로 정확한 저작권면을 확인할 수 없어 작가출처나 창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음.
- 1947년 출간된 아협그림애기책 제8집의 재판본으로 문화재로 가치 없음.

○ ○ ○ ○ (2017.11.24.)

- 만화책은 기본 성격이 복제물이므로, 단행본 한 작품에 대해서만 등록문화재로 선정하기엔 어려움이 따름. 만화 단행본의 영역에서 등록문화재로 선정되었던 <토끼와 원숭이>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었고, 게다가 최초의 만화단행본 이기에 가능했다면, <로빈슨 크루소>는 첫 번째 만화 단행본도 아니고, 향후 이러한 만화책이 또 등장할 수도 있어(유일무이한 작품이 아니라는 점), 등록 문화재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이 도서는 정현웅의 작품인가 추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작가명이 명확히 표기되지 않았기에 문화재로서의 진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등록 가치 미흡

○ 출석 8명/ 부결 8명

〈붙임〉

「현대만화 ‘로빈슨 크루소’」 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대만화 ‘로빈슨 크루소’
2.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33-23 호계1차 현대홈타운 102-1602
3. 소유자 : 정만운
4. 조사자 의견

<○○○○(2017.11.24.)>

1) 현상

- 32쪽으로 되어 있는데,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음.

2) 내용 및 특징

- 다니엘 디포(Daniel Defoe)의 유명한 소설 <로빈슨 크루소>를 만화로 만든 것임.
- 다니엘 디포는 영국의 소설가이며 언론인으로 활동한 인물인데, 1719년 <로빈슨 크루소>를 발표함으로써 대중적으로 유명한 작가 대열에 들어섬. <로빈슨 크루소>의 원제는 <요크의 선원 로빈슨 크루소의 생애와 이상하고 놀라운 모험> (The Life and Strange Surprising Adventures of Robinson Crusoe of York)임.
- <로빈슨 크루소>는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가 항해하다가 바다에 난파되어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후 온갖 어려움을 겪고 모험을 하다가 결국 탈출하여 영국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엮은 소설임. 이 소설은 이후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한국에도 일찍 들어와 출판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널리 읽히고 있음. 특히, 아동들에게 널리 읽히게 되면서 한국에서도 만화로 등장하게 된 것임.
- 판권란을 보면, “발행 4285. 1. 11. 값2,000원 등록 4283. 11. 1. 을유문화사”라고 나와 있음. 여기에는 또한 을유문화사의 다른 어린이 책 광고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음. “★을유문화사 발행·어린이 책★ 미국 모험소설 피노치오 값 2500원/세계 동화집 왕자와 부하들 값 2500원/그림 얘기책 손오공 값 2000원/그림 얘기책 보물책 값 2000원/그림 얘기책 어린 예술가 값 2000원”
- <로빈슨 크루소>에는 표지나 판권에 저자나 그린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음.
- <로빈슨 크루소>는 만화 형식이라고 하지만, 최근의 만화 형식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줌. 각 페이지마다 그림과 글을 세로로 구분하고 있는데, 페이지의 왼쪽 부분에 그림을 세 컷씩 배치하여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옆 오른쪽 부분을 글로 채우고 있음. 그림 안에는 말풍선이 들어 있지 않고 대화도 그림 밖의 글 내용 속에 들어가 있음. 말하자면 최근의 만화책 형태와 다르게 나와 있음. 서문에서는 ‘그림얘기책’이라고 밝히고 있음.

3)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로빈슨 크루소>는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까지도 꾸준히 출판되면서 널리 읽히고 있는 책이기는 하지만, 이 만화는 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외국의 유명 소설을 그림을 넣어 짧게 설명해낸 것으로 내용적으로 우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문화재로 등록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4) 종합의견

- 위 책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외국의 유명 소설을 그림을 넣어 짧게 설명해낸 것으로 내용적으로 우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문화재로 등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2017.11.24.)>

1) 현상

- 조사문화재 <로빈슨 크루소>의 서지기술은 다음과 같다.
 - 로빈슨 크루소 / 미확인 --만화인쇄본--[서울] : [을유문화사], 1952.
 - 1책 32면 : 142×181mm, 139×184mm(2중), 갠지
 - 내용 : 조선아동문화협회에서 출간한 그림애기책 시리즈로 초판은 1947년 아협 그림애기책 제8집으로 출간되었음. 1952년에 출간된 재판본으로 정확한 저작권면을 확인할 수 없어 작가출처나 창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음.
- 조사문화재 <로빈슨 크루소>는 초판본의 경우 1947년에 출간된 아협그림애기책 시리즈 중 한 권이다. 아협그림애기책은 대부분 원작을 각색했는데, 만화를 그린 작가가 명기되어있는 다른 작품과 달리 작가가 명기되어있지 않아 이 작품의 창작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조사문화재 <로빈슨 크루소>는 개인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출판사를 경영 하였던 선대 서고 정리 중 발견하여 소장하고 있다고 밝힘.

2) 내용 및 특징

- 작가 미확인
 - 작가를 확인할 수 없으나, 그려진 스타일 등으로 보아 일제 강점기 일본의 소년 문고의 복제본이 아닌가 추정함.
- 작품에 대하여
 - 창작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아협그림애기책 시리즈 중 한 권으로 출판되었으나, 현재 제출된 작품은 재판본임.

3) 기타

- 소장경위
 - 소장자가 제공한 등록신청서에 따르면, 선친 작고 후 서가 정리 중 발견했다고 함.
- 동일유형 기등록 문화재와 가치 비교
 - 김용환의 작품은 1946년 5월 1일 출간된 해방 이후 최초로 출간된 만화인 <토끼와 원숭이> 도서와 만화 단행본 <만화 코주부 삼국지> 1-3권이 모두 등록되어있음. <토끼와 원숭이>는 최초의 단행본이라는 역사적 측면, <만화 코주부 삼국지>과 초기 그림책 형식에서 말풍선이 등장하고, 칸이 분리된 보다 진보된 형식의 만화이며, 1950년대를 대표하는 인기 만화 단행본이라는 내용적 측면이 높은 평가를 받았음. 또한 보관처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산하 한국만화박물관의 수장고여서 연구에 대한 공공적 접근의 효율성과 장기적이고 안정적 보관의 가능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음.
 - <로빈슨 크루소>는 최초에 대한 역사적 측면이나 내용적 측면에서도 모두 기등록 문화재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며, 소장자의 측면에서도 공공적 접근이나 안정적 보관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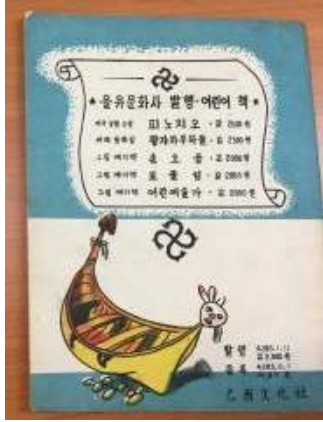
5) 종합의견

- 1947년 출간된 아협그림애기책 제8집의 재판본으로 문화재로 가치 없음.

<○○○○(2017.11.24.)>

1) 현상

- 두 권 모두 보관 상태는 양호한 편임. 이번에 함께 신청한 <어린 예술가>의 작가명 불표기 작품과 더불어 같은 날에 출간된 작품이기도 함. 앞표지에는 작가명 없이 출판사명만 표기되어있고, 뒷표지에도 작가에 대한 정보는 없음. 동일한 날짜로 표기되어있으나 2권이 각기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나는 것으로 보아 여러 번 출간한 작품일수도 있음.
- 뒷 표지에는 을유문화사가 발행한 책들이 언급되어있음. <피노치오>, <왕자와 부하들>, <로빈슨 크루소>, <보물섬>, <어린 예술가>임. 이 중에서 ‘그림얘기책’이라고 표기되어있는 것은 <손오공>, <보물섬>, <어린 예술가>이며 이 세권은 모두 각권 2,000원이라고 적시하고 있음. <피노치오>, <왕자와 부하들>은 각기 ‘미국모험소설’, ‘세계동화집’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가격도 2,500원인 것으로 보아 아동소설로 보임. <어린 예술가>의 경우는 <손오공> 대신 <로빈슨 크루소>가 표기되어 있었음. <어린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앞표지의 안쪽면은 백지인 상태 그대로이고, 오른쪽부터 만화책 1페이지가 시작하고 있음. 표지들의 안쪽면들을 제외하고 만화만 32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형식은 조선아동문학협회의 ‘그림얘기책’ 시리즈와 동일함.
- 32페이지의 만화는 한 페이지의 왼쪽 편에 세로로 3칸 안에 등장하며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고, 한 페이지의 오른쪽 편에는 설명 및 묘사를 하고 있음. 아직은 모든 텍스트들이 칸 속에 들어가는 현대적인 만화형태는 아니고, 그에 선행하는 방식이기도 함.

	
앞표지	앞표지 안면과 1페이지
	
뒷표지	4-5페이지

- 이 작품의 특이성은 서술자가 ‘나’라는 것. 자신이 스스로 겪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기에, 다른 작품들이 주로 3인칭 화자들을 내세우는 것과는 다른 느낌을 부여하고 있음.
- 박기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작품의 창작자는 정현웅이라고 하는데, 삽화스타일을 강하게 보이고 있으므로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하기 어려움. 만약 아협이 그림애기책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온다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2) 문헌자료

- 박기준, ‘사진으로 보는 만화야사’ 온라인 연재물
http://www.komacn.kr/dmk/manhwazine/zine_view.asp?CateCode=3340010&Seq=2342

3) 내용 및 특징

- ‘나’라는 로빈슨 크루소가 자신의 경험담을 서술하는 방식임. 왼쪽의 그림체는 만화체라기보다는 명작동화 방식의 삽화체에 조금 더 가깝게 보임. 간단하고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기에 앞표지의 이미지들과는 차이가 있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당시의 컬러인쇄로 삽화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만화책은 기본 성격이 복제물이므로, 단행본 한 작품에 대해서만 등록문화재로 선정하기엔 어려움이 따름. 만화 단행본의 영역에서 등록문화재로 선정되었던 <토끼와 원숭이>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었고, 게다가 최초의 만화단행본 이기에 가능했다면, <로빈슨 크루소>는 첫 번째 만화단행본도 아니고, 향후 이러한 만화책이 또 등장할 수도 있어(유일무이한 작품이 아니라는 점), 등록문화재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이 도서는 정현웅의 작품인가 추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작가명이 명확히 표기되지 않았기에 문화재로서의 진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5) 종합의견

- 문화재 등록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음

5. 「현대만화 ‘홍부와 놀부’」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현대만화 ‘홍부와 놀부’」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개인 소장자가 등록 신청한 유물인 「현대만화 ‘홍부와 놀부’」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제작 년대	제작자	소유자	소재지	비고
현대만화 ‘홍부와 놀부’	2권	148×210mm / 32면	쟁지	1946년	김용환	○ ○ ○	○ ○ ○	

(3) 추진경과

- 문화재 등록 신청(‘16. 4. 26.)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7. 11. 24.)

(4)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 (2017.11.24.)

- 이 책은 만화가 김용환이 흥부전을 만화로 만든 것이지만, 뚜렷한 특징이 드러나지 않고 있음. 이미 문화재로 등록된 같은 저자의 만화 <토끼와 원숭이>와 비교할 때, 내용적인 측면에서나 만화 출판의 역사에서 볼 때 가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문화재로 등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 ○ ○ (2017.11.24.)

- 김용환의 작품은 1946년 5월 1일 출간된 해방 이후 최초로 출간된 만화인 <토끼와 원숭이> 도서와 만화 단행본 <만화 코주부 삼국지> 1-3권이 모두 등록되어있음. <토끼와 원숭이>는 최초의 단행본이라는 역사적 측면, <만화 코주부 삼국지>과 초기 그림책 형식에서 말풍선이 등장하고, 칸이 분리된 보다 진보된 형식의 만화이며, 1950년대를 대표하는 인기 만화 단행본이라는 내용적 측면이 높은 평가를 받았음.
- <흥부와 놀부>는 최초에 대한 역사적 측면이나 내용적 측면에서도 모두 기등록 문화재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흥부와 놀부>까지 문화재로 등록할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 ○ ○ (2017.11.24.)

- 만화책은 기본 성격이 복제물이므로, 단행본 한 작품에 대해서만 등록 문화재로 선정하기엔 어려움이 따름. <토끼와 원숭이>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었고, 게다가 최초의 만화단행본이기에 등록문화재로 선정된 반면, <흥부와 놀부>는 이미 첫 번째 단행본이라는 의미를 추가하기 어려우므로, 등록문화재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등록 가치 미흡

○ 출석 8명/ 부결 8명

〈붙임〉

「현대만화 ‘홍부와 놀부’」 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대만화 ‘홍부와 놀부’
2.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33-23 호계1차 현대홈타운 102-1602
3. 소유자 : 정만운
4. 조사자 의견

<○○○(2017.11.24.)>

1) 현상

- 32쪽으로 되어 있는데,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음.

2) 내용 및 특징

- 이 책은 <홍부전>을 김용환 화백이 만화로 만들어낸 것임.
- 판권란을 보면, “아협그림애기책·제1집·홍부와 놀부”라고 나와 있음. 그리고 “1946년 9월 1일·조선아동문화협회 발행·총판매소·을유문화사”이라고 나와 있음. 아협그림애기책 제5집 <어린 예술가>와 같은 방식인데 발행일이 앞서 있음.
- <홍부와 놀부>의 내용은 ‘꾸민 사람 씬’이라고 되어 있는 서문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음. “<홍부전>이란 애기책에서 따서 그림책으로 꾸며 본 것이다. …놀부라는 고약한 형과 홍부라는 착한 아우가 있어 결국 고약한 형이 벌을 받고 착한 아우에게 사죄한다는 얘기” 그리고 나서 홍부전을 일독하도록 권하고 있음.
- 또한, <주간 소학생>에 연재하던 것을 토대로 책 하나를 만든 것이라고 밝힘. <주간 소학생> 역시 <홍부와 놀부>를 발행한 조선아동문화협회에서 내는 잡지임. <주간 소학생>은 조선아동문화협회에서 내는 “여러 책들 중에서 기둥”이라고 강조함. 그리고, “과학지식, 동화, 동요, 상식, 책소식, 만화 같은 어린이에게 필요한 기사가 가득 실려 있는” 잡지인데 구독하려면, “한 달치 8원에 송료 1원을 보내시라”고 <홍부와 놀부> 맨 뒷장에서 홍보함.
- <홍부와 놀부>는 만화라 하지만, 최근의 만화 형식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줌. 각 페이지마다 그림과 글을 세로로 구분하고 있는데, 페이지의 왼쪽 부분에 그림을 세 컷씩 배치하여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옆 오른쪽 부분을 글로 채우고 있음. 그림 안에는 말풍선이 들어 있지 않음. 이런 방식은 <어린 예술가>와 <로빈슨 크루소>와 같음.
- 이 만화의 의의는 한국 만화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는 만화가 김용환의 작품이라는 점임. 1912년에 출생한 김용환은 아동 만화뿐만 아니라 시사 만화, 소설 삽화, 캐리커처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임. 그의 만화 <토끼와 원숭이>는 최초의 만화 단행본으로 평가받고 있어 현재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임.

3)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홍부와 놀부>는 만화가 김용환이 홍부전을 만화로 만든 것이지만,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미 문화재로 등록된 같은 저자의

만화 <토끼와 원숭이>와 비교할 때, 내용적인 측면에서나 만화 출판의 역사에서 볼 때 가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문화재로 등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4) 종합의견

- 이 책은 만화가 김용환이 흥부전을 만화로 만든 것이지만, 뚜렷한 특징이 드러나지 않고 있음. 이미 문화재로 등록된 같은 저자의 만화 <토끼와 원숭이>와 비교할 때, 내용적인 측면에서나 만화 출판의 역사에서 볼 때 가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문화재로 등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2017.11.24.)>

1) 현상

- 조사문화재 <홍부와 놀부>의 서지기술은 다음과 같음
 - 홍부와 놀부 / 김용환(1912-1998) --만화인쇄본--[서울] : [조선아동문화협회], 1946.
 - 1책 32면 : 148×210mm, 갠지
 - 내용 : 1945년 해방 이후 조선아동문화협회에서 출간한 그림애기책 시리즈로 1946년 5월 1일 출간된 마해송 원작, 김용환 작화 <토끼와 원숭이>(문화재등록)에 이어 1946년 9월 1일 출간된 작품이다. <홍부와 놀부>는 판소리계 고전소설 <홍부전>을 만화로 각색한 작품임.
- 조사문화재 <홍부와 놀부>는 판소리계 고전소설 <홍부전>을 김용환(1912-1998) 작가가 각색하여 32페이지 분량의 만화 단행본이며, 조선아동문화협회를 통해 1946년 9월 1일 출간되었음. ‘아협그림애기책 제1집’으로 표기되어있으며, 이후 ‘그림애기책’은 <로빈슨 크루소>, <보물섬>, <어린예술가>로 시리즈가 출간되었음. 해방 이후 출간된 첫 만화 시리즈로 평가됨.
- 조사문화재 <홍부와 놀부>는 개인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출판사를 경영 하였던 선대 서고 정리 중 발견하여 소장하고 있다고 밝힘.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해방 후 선대께서는 1946년 부산에서 신생사, 현대사라는 출판사를 운영하였음. 6.25 전란 중 물자가 귀하던 시기 목정화백과는 해방 전, 후부터 친한 친구 사이로, 운영하던 부산 광복동 소재의 신생사에서 거의 기거하다시피 하였다 함”이라 주장하고 있음.

2) 내용 및 특징

- 작가 김용환(1912-1998)
 - 김용환은 1912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났음. 김용환에게 공식적으로 코주부 캐릭터를 계승한 이원수의 증언에 따르면, “김해 진영 출신의 김용환 선생은 형제 남자 셋을 포함한 11남매의 맏이로 태어났다. 집안은 당시 과수원을 운영하여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는 집안이었다.”(이원수, <2013 경남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학술대회 발제자료집>, 2013)고 함. 동래고보 전형에 일간지 연재만화 캐릭터 ‘멍텅구리’를 그려 특기생으로 합격한 뒤 화가(만화가)로 살아갈 것을 결심했음. 고등학교 졸업 후 1909년 일본화가 가야바타 코쿠쇼(川端玉章)가 설립한 가와바타 미술학교(川端畫學校)에 입학했으며, 졸업 후 무사시노 미술대학(武藏野美術大學)의 전신인 데이코쿠 미술학교(帝國美術學校)를 다녔음.
 - 데이코쿠(帝國) 미술학교에 다니는 중 학비를 벌기 위해 일본의 삽화가 에지마 다케오(江島武夫)의 조수로 일함. 에지마 다케오에게서 틈틈히 익힌 세밀한 펜화를 소년잡지 『니혼쇼넨(日本少年)』에 보내 ‘기타 코오지(北二)’라는 이름으로 연재를 시작함.
 - “일본의 출판물에서 기타 코우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 한 것은 월간지 <니혼쇼넨(日本少年)> 1935년 3월호에서이다...(중략)...김용환은 1년 후인 1936년 2월호부터 1937년 3월호까지 <니혼쇼넨>에 연재된 니노미야 이해이(二宮伊平)의 소설 <소년 행진곡(少年行進曲)>의 삽화를 담당했다. 단발성 삽화가 아니라 매 호 연재되는 소설의 삽화를 담당 했다는 것은 김용환이 본격적으로 삽화가로서의 활동을 시작 했고 잡지 편집부로부터 어느 정도 그 실력을 인정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김소원, <2013 경남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학술대회 발제자료집>, 2013)

- 이 시절부터 시작한 김용환의 세밀한 펜화는 이후 시사만화, 연재 삽화, 펜화 등에서 살아있는 ‘조선의 얼굴’을 탁월하게 그리는 밑바탕이 되었음. 태평양전쟁 말 잡지사들이 속속 폐간하자 김용환 선생은 쇼지쿠(松竹) 영화사로 옮겨 애니메이션에 눈을 떴고 해방되기 일년전 일본에서 귀국, 한국최초의 애니메이션 작업을 준비하기도 했음.
- 해방 후 영자신문 《서울타임스(Seoul Times)》에 연재만화 <코주부>를, 《중앙신문》에 시사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음. 이미 일본에 있을 때부터 유명세를 얻은 김용환은 해방정국에서 시사만화를 비롯해 아동만화 단행본을 그리며 한국만화 정착에 이바지했음. 김용환이 1946년 발표한 만화단행본 「토끼와 원숭이」는 2013년 2월 21일 등록문화재 제537호로 등록되었음. 「토끼와 원숭이」는 아동 문학가 마해송 선생의 원작을 만화가 김용환 선생이 총 34면으로 옮긴 작품으로 해방 이후 ‘조선아동문화협회(아협)’의 적극적 주도로 진행된 ‘그림애기책’ 시리즈로 출간된 작품임.
- 또한, 잡지 『학원』에 연재한 <코주부 삼국지>는 잡지 연재 시 큰 인기를 얻었고, 이후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50년대 대표적인 어린이만화로 평가받고 있음. 이처럼 <코주부 삼국지>, <코주부 탐정> 등 김용환 선생의 아동물은 가장 어려운 시기 어린이들을 위로하는 좋은 벗이 되었음. 순수미술과 펜화, 시사만화와 아동만화를 넘나드는 그의 탁월한 실력은 일제시대 총독부에 소속되어, 인민군 전선사령부의 문화선전대에서, 육군본부 작전국의 심리전과에서 전혀 다른 정치적 내용을 만화로 그리기는 비극을 낳기도 했음.
- 1948년 최초의 시사만화잡지인 『만화행진』의 발행을 주도했으며, 1955년에는 한국만화가협회의 전신인 대한만화가협회를 결성해 초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음. 그러나 59년 한국을 뒤로 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김용환 선생은 일본에서도 꾸준히 작품활동을 계속하다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 1998년 12월 1일 눈을 감았음. 김용환 선생은 한국만화사에 있어 해방 이후 현대만화사의 토대를 닦은 작가로 평가받고 있음.

○ 작품에 대하여

- 전작 <토끼와 원숭이> 이후 판소리계 고전소설 <흥부전>을 각색해 만화를 완성했음. 형식은 <토끼와 원숭이>와 동일함. 칸 안에 말풍선이 도입되거나, 해설칸이 자리잡지 못했음. 그림과 글은 별도로 분리되어있고, 그림책 삽화처럼 1페이지에 동일하게 3개의 칸이 나뉘어있고, 그 옆에 글이 써 있음. 김용환은 <흥부전>의 장면을 칸 안에 효과적으로 재현하고 있음. 특히 만화연출의 방식이 발전하지 못해 같은 크기의 칸을 연속적으로 배치했지만, 칸 안에서 앵글이나 쇼트 연출을 다양하게 진행하며 만화에 역동감을 불어넣어줌.

3) 기타

○ 소장경위

- 소장자가 제공한 등록신청서에 따르면, 선친 작고 후 서가 정리 중 발견했다고 함. 소장자의 선친과 김용환의 관계에 대해서는 해방 이후 부산에서 신생사, 현대사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던 선친이 한국전쟁 중 김용환과 함께 작업을 했고, 이후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음.

○ 참고(등록신청서의 기술 내용)

- 해방 후 선대께서는 1946년 부산에서 신생사, 현대사라는 출판사를 운영하였

음. 6.25 전란 중 물자가 귀하던 시기 목정화백과는 해방 전, 후부터 친한 친구 사이로, 운영하던 부산 광복동 소재의 신생사에서 거의 기거하다시피 하였다 함. 전란 중 목정화백은 신생사에서 성웅 충무공의 교육교재 영화(즉 애니메이션)를 6개월에 걸쳐 물감을 만들어 충무공의 해전도를 그렸으며 아울러 선대 어른은 한국 최초 슬라이드 및 16mm 성웅충무공교육 교재영화와 울릉도의 제작자임.(1952.10.27. 현재 관련서류.허가서.대본.기타 및 보관본 필름 보관중) 그후 제주도를(1953.3.20.) 또한 경주 신라의 고대수도(1953.7.15.) 전란 중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역사 교육에 앞장 섰으며 전란 중 국방부의 요청으로 전단(빠라)를 제작하여 무상 공급 하였으나 후손으로써 지금은 자부심이 다소 있으며. 2번이나 납북되어 끌려가다 도망치다 붙잡혀서 죽을 고비의 고초를 겪었다 함. 저 또한 청소년 시절에 어른의 심부름으로 목정, 노산, 외솔, 윤석중, 운보, 위당, 허웅, 조정, 이원수 선생 등 여러 문인 어른들의 모임 장소였던 충무로3가와, 종로2가 태을다방(지금은 없어진지 오래됨) 등에 종종 심부름을 하였고 특히나 목정 선생의 마도로스 파이프 담배는 지금도 아련함.

○ 동일유형 기등록 문화재와 가치 비교

- 김용환의 작품은 1946년 5월 1일 출간된 해방 이후 최초로 출간된 만화인 <토끼와 원숭이> 도서와 만화 단행본 <만화 코주부 삼국지> 1-3권이 모두 등록되어있음. <토끼와 원숭이>는 최초의 단행본이라는 역사적 측면, <만화 코주부 삼국지>와 초기 그림책 형식에서 말풍선이 등장하고, 칸이 분리된 보다 진보된 형식의 만화이며, 1950년대를 대표하는 인기 만화 단행본이라는 내용적 측면이 높은 평가를 받았음. 또한 보관처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산하 한국만화박물관의 수장고여서 연구에 대한 공공적 접근의 효율성과 장기적이고 안정적 보관의 가능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음.
- <홍부와 놀부>는 최초에 대한 역사적 측면이나 내용적 측면에서도 모두 기등록 문화재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며, 소장자의 측면에서도 공공적 접근이나 안정적 보관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4) 종합의견

- 김용환 저 <홍부와 놀부>는 동일유형 기등록문화재인 <토끼와 원숭이>나 <만화 코주부 삼국지>와 비교해 역사적 측면이나 내용적 측면에서 우수성을 찾기 어려움. 또한 소장자(처)의 측면에서도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등록문화재와 비교해 공공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떨어짐. 마지막으로 김용환의 작품은 <토끼와 원숭이>와 <만화 코주부 삼국지>까지 2권이 모두 원본(원고) 형태가 아닌 출판된 책자이기 때문에 <홍부와 놀부>까지 문화재로 등록할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017.11.24.)>

1) 현상

- 앞뒤 표지 제외하고 만화 페이지만 총 32페이지임. 앞표지에는 제목 ‘흥부와 놀부’ 저자명 ‘김용환’, 출판장소 ‘서울’ 그리고 ‘조선아동문화협회 발행’이라는 항목들이 표기되어있음. 뒷 표지에는 ‘아협 그림애기책 제 1집’이라는 설명이 표시되어있음. ‘아협’은 조선아동문화협회를 줄여서 부르는 단어이고, ‘만화책’이 아니라 ‘그림애기책’이라고 명기한 부분이 눈에 띈. 앞표지의 안쪽 면에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 대해 ‘꾸민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 작품이 “주간소학생”에 연재 하던 작품이라는 사항도 알려주고 있음. 뒷표지의 안쪽 면에는 이 작품이 원래 실렸던 잡지 “주간소학생”에 대한 설명과 주문방법을 알려주고 있음. 또한 이 작품이 발행인은 ‘조선아동문화협회’이지만, 총판매소는 ‘을유문화사’이고 정가는 15원이라는 사실도 표기하고 있음. 32페이지의 만화는 김용환 특유의 동글동글한 인물형들이 한 페이지의 왼쪽 편에 세로로 3칸 안에 등장하며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고, 한 페이지의 오른쪽 편에는 대사 및 설명을 하고 있음. 아직은 모든 텍스트들이 칸 속에 들어가는 현대적인 만화형태는 아니고, 그에 선행하는 방식이기도 함.
- 약간의 손실이 있긴 하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음

2) 내용 및 특징

- <흥부전>이라는 이야기를 어린이 대상으로 32페이지에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음.

	
표지	표지의 안쪽면과 1페이지
	
6-7페이지	32페이지와 겉표지의 안쪽면

- 비록 아직 텍스트와 말풍선이 칸들 안에서 그림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6-7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동작선 및 감정묘사 방식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해방 이후 아동용 만화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초기 한국만화의 대표작가 중의 한 명인 김용환(1912-1998)의 <토끼와 원숭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단행본 만화책으로 1946년 5월 1일 조선아동문화협회에서 발행한 서적임. <토끼와 원숭이> 역시 32페이지의 만화책 단행본으로 성격상 <홍부와 놀부>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나, <홍부와 놀부>가 <토끼와 원숭이>에 비해 4개월이나 늦게 나온 작품이므로, 등록문화재로써의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움.
- 만화책은 기본 성격이 복제물이므로, 단행본 한 작품에 대해서만 등록문화재로 선정하기엔 어려움이 따름. <토끼와 원숭이>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었고, 게다가 최초의 만화단행본이기에 등록문화재로 선정된 반면, <홍부와 놀부>는 이미 첫 번째 단행본이라는 의미를 추가하기 어려우므로, 등록문화재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5) 종합의견

- 문화재 등록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음

6. 「현대만화 ‘어린 예술가’」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현대만화 ‘어린 예술가’」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개인 소장자가 등록 신청한 유물인 「현대만화 ‘어린 예술가’」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제작 년대	제작자	소유자	소재지	비고
현대만화 ‘어린 예술가’	1권	145×208mm / 32면	강지	1946년	김의환	○ ○ ○	○ ○ ○	
	1권	140×185mm / 32면	강지	1952년	”	○ ○ ○	○ ○ ○	

(3) 추진경과

- 문화재 등록 신청(‘16. 4. 26.)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7. 11. 24.)

(4)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 2017.11.24.)

- 이 책은 유명한 소설 <플랜다스의 개>를 바탕으로 만든 만화인데, 내용면에서 우수성을 찾기 어렵고, 만화 출판의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그 가치를 찾기 어려움. 따라서, 등록 문화재로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 ○ ○ (2017.11.24.)

- 김의환 저 <어린 예술가> 1946년판은 <플랜다스의 개>를 만화화한 작품으로 그림얘기책 시리즈 다섯 번째 작품임. 동일 유형의 기등록문화재에 비해 역사적 측면이나 내용적 측면에서 우수성을 찾기 어려움.
- 김의환 저 <어린 예술가> 1952년판은, 1946년도 초판본의 재판본으로 문화재로 의미를 찾기 어려움.

○ ○ ○ ○ (2017.11.24.)

- 만화책은 기본 성격이 복제물이므로, 단행본 한 작품에 대해서만 등록 문화재로 선정하기엔 어려움이 따름. <토끼와 원숭이>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었고, 게다가 최초의 만화단행본이기에 등록문화재로 선정된 반면, <어린예술가>는 첫 번째 만화 단행본도 아니고, 향후 이러한 만화책이 또 등장할 수도 있어(유일무이한 작품이 아니라는 점), 등록문화재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어린 예술가 1952년판은 김의환의 작품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저자명을 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화재로서의 진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등록 가치 미흡

○ 출석 8명/ 부결 8명

〈붙임〉

「현대만화 ‘어린 예술가’」 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대만화 ‘어린 예술가’
2.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33-23 호계1차 현대홈타운 102-1602
3. 소유자 : 정만운
4. 조사자 의견

<○○○(2017.11.24.)>

1) 현상

- 32쪽으로 되어 있는데, 파본이나 낙장이 없는 상태로 양호하게 보존되고 있음.

2) 내용 및 특징

- <어린 예술가>는 1946년판과 1952년판이 있는데 내용은 동일함.
- 1946년판의 판권란을 보면, “아협그림애기책·제5집·어린 예술가”라고 한 다음 “1946년 11월 5일·조선아동문화협회 발행·총판매소·을유문화사·임시정가 15원”이라고 나와 있음.
- 1952년판의 판권란을 보면, “발행 4285. 1. 11. 값2,000원 등록 4283. 11. 1. 을유문화사”라고 나와 있음. 여기에서 을유문화사의 출판사 등록일자가 단기 4283년(서기 1950)년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을유문화사가 해방 직후인 1945년 12월 1일 설립되어 활동을 했지만 정식 등록은 정부 수립 이후로 했기 때문일 것임. 출판 활동은 1945년부터 시작하였고, <어린 예술가> 1946년판의 총판매소 역할도 한 것으로 되어 있음.
- 위에 나온 1946년판과 1952년판의 두 판본을 비교해 보면, 1946년판은 조선아동문화협회에서 내고, 을유문화사에서 판매만 담당해주던 것을 1952년(단기 4285년)에 을유문화사에서 발행까지 맡은 것을 알 수 있음. 1952년판의 맨 뒷장에는 ‘을유문화사 발행 · 어린이 책’ 다섯 권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음. “피노치오, 왕자와 부하들, 로빈슨 크루소, 보물섬, 어린 예술가.”
- <어린 예술가>는 영국 소설가 위다(Ouida)가 1872년에 쓴 소설 <플랜더스의 개>(A Dog of Flanders)를 만화 형식으로 꾸민 것임. 이 소설은 서양에서 널리 읽혔고, 한국에도 이미 일제강점기에 번역되어 잘 알려진 소설임. <플랜더스의 개>는 해방 직후와 1950년대 초에 연속해서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출판이 이어지면서 아동들에게 널리 읽히고 있음. 물론 최근에는 <어린 예술가>가 아니라 <플랜더스의 개>라는 제목으로 출판되고 있음.
- <어린 예술가>는 1946년판 표지에 만화가 ‘김의환’의 이름이 나와 있어 그가 그리고 글을 썼음을 알 수 있게 해줌. 책의 맨 앞장에 있는 서문에는 “이 얘기 속에는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진 가난한 소년과 그의 사랑하는 동무 개의 슬픈 일생이 적혀 있다.”고 하고 “꾸민 사람 씬”이라고 명기해 놓았음.
- <어린 예술가>는 만화 형식이라고 하지만, 최근의 만화 형식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줌. 각 페이지마다 그림과 글로 세로로 구분하고 있는데, 페이지의 왼쪽 부분에 그림을 세 컷씩 배치하여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옆 오른쪽 부분

을 글로 채우고 있음. 그림 안에는 말풍선이 들어 있지 않고 대화도 그림 밖의 글 내용 속에 들어가 있음. 말하자면 최근의 만화책 형태와 다르게 나와 있음. 서문에서는 ‘그림얘기책’이라고 밝히고 있음.

3)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어린 예술가>는 해방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동들에게 널리 읽힌 책이기는 하지만, 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외국의 유명 소설을 그림을 넣어 짧게 설명해낸 것으로 내용적으로 우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만화 출판의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 이 책은 유명한 소설 <플랜다스의 개>를 바탕으로 만든 만화인데, 내용면에서 우수성을 찾기 어렵고, 만화 출판의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그 가치를 찾기 어려움. 따라서, 등록 문화재로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017.11.24.)>

1) 현상

- * 어린 예술가 / 김의환(1914-?) --만화인쇄본--[서울] : [조선아동문화협회], 1946.
- * 1책 32면 : 145×208mm, 갠지
- * 내용 : 1945년 해방 이후 조선아동문화협회에서 출간한 그림애기책 시리즈로 1946년 9월 1일 <홍부와 놀부>부터 출간된 시리즈다. <어린 예술가>는 그림애기책 중 다섯 번째 출간된 작품으로 영국의 소설가 위다(Ouida, 1839-1908)의 1872년도 작품 <플란다스의 개(A Dog of Flanders)>를 만화로 각색한 작품이다.

- * 어린 예술가 / 김의환(1914-?) --만화인쇄본--[서울] : [을유문화사], 1952.
- * 1책 32면 : 140×185mm, 갠지
- * 내용 : 1946년 그림애기책 중 다섯 번째 출간된 <어린 예술가>의 1952년 재판본. 김의환의 만화로 영국의 소설가 위다(Ouida, 1839-1908)의 1872년도 작품 <플란다스의 개(A Dog of Flanders)>를 만화로 각색한 작품이다.

- 조사문화재 <어린 예술가>는 개인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출판사를 경영하였던 선대 서고 정리 중 발견하여 소장하고 있다고 밝힘.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해방 후 선대께서는 1946년 부산에서 신생사, 현대사의 출판사를 운영 시 그의 형인 목정 김용환 화백과 함께 만화와 삽화를 많이 그리다..”고 밝혔으며, 선대에서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2) 내용 및 특징

○ 작가 김의환(1914-?)

- 김의환은 김용환의 동생으로 1914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났음.(《동아일보》 1978년 8월 2일자 2면에 수록된 <신팔도기 84회 김해편>에 따르면 김해에서 태어난 문화예술인으로 만화가 김용환과 김의환을 꼽고 있음.) 김의환은 형 김용환과 함께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 잡지사에서 삽화가 시바 요시오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음.
- 해방 이후 귀국했다고 되어있는데, 김용환 선생이 해방 전 일본 잡지사의 한국 촉탁사원으로 귀국했으니 김의환의 귀국도 해방 전일 수도 있음. 김의환은 한국에 돌아와 아협이 작가로 활동하는데, 아협그림애기책 시리즈에 참여해 <어린 예술가>(1946), <걸리버여행기>(1947), <왕자와 부하들>(1948)을 시리즈로 출간함. 한편 아협에서 ‘소파아동독본 시리즈’로 나온 <까치집>(방운용 글, 1946)에는 삽화가로 참여했음. 현덕의 <광명을 찾아서>(동지사아동원, 1949)에서도 삽화를 담당했음.
- 현덕의 <광명을 찾아서>를 펴낸 동지사아동원은 1949년 1월에 <어린이나라>라는 잡지를 창간했고, 김의환도 이 잡지에서 활동했음. 월북한 현덕은 1949년 보도연맹 검속 대상자였고, 이를 피해 도피생활을 했었음. 도피생활 중 전한 원고가 <광명을 찾아서>고, 김의환 선생은 이 책에 삽화를 그렸음. <광명을 찾아서> 초판본은 1949년 4월 15일에 발행되었음. 주요섭의 동화 <웅칠이의 모험>(1949)에서도 삽화를 담당했음.
- 1948년 12월 5일부터 30일까지 《경향신문》에 시사만화를 연재했고, 유엔 극동군 사령부가 발행한 <자유의 밭>에 만평과 삽화 등을 연재했다고 되어있음. 이어 1960~70년대 어린이 만화와 함께 <명랑>, <아리랑> 등 성인잡지에 만화를

연재했고, 《동아일보》 등에 만평을 연재했음. 1970년대에는 다시 도일해 형 김용환과 함께 활동했음.

○ 작품에 대하여

- 1949년 출간한 아협그림애기책 시리즈 중 다섯 번째 작품과 재판본임. 1946년 5월 1일 『주간소학생』을 창간한 조선아동문화협회는 205×150mm 규격의 32면으로 구성된 만화책 시리즈를 출간함. 해방 이후 만화책은 주로 아동문학서적을 출간하는 출판사에서 주로 제작되었음. 주로 서구의 명작소설이나 전래동화를 만화하거나, 위인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음. 김용환을 비롯해 김용환의 동생인 김의환, 정현웅, 임동은 등의 만화가들이 제작에 참여했음.
- 이 시기 만화책은 그림책과 만화책의 미묘한 경계에서 있는 작품들이 많았음. 9월 1일 김용환 <홍부와 놀부>(조선아동문화협회)를 시작으로 조선아동문화협회(아협)의 ‘그림애기책’ 시리즈가 을유문화사를 통해 출간되기 시작함. 1946년 9월 1일 출간된 김용환의 <홍부와 놀부>를 시작으로 아협의 ‘그림애기책’은 1949년 3월 28일 <린큰>까지 총 13권이 출간되었음. 김용환이 4권, 김의환이 3권, 정현웅이 1권을 그렸다. 가격은 권당 15원임.

3) 기 타

○ 을유문화사 출간목록(순서)

- 김용환 <홍부와 놀부-아협그림애기책 제1집>(1946. 9. 1.)
- 김의환 <피터어 팬-아협그림애기책 제3집>(1946. 10. 1.)
- 김용환 <보물섬-아협그림애기책 제4집>(1946. 10. 1.)
- 김용환 <손오공-아협그림애기책 제2집>(1946. 11. 27.)
- 김의환 <어린 예술가-아협그림애기책 제5>>(1946. 11. 5.)
- <걸리버여행기-아협그림애기책 제6집>(1947. 3. 10)
- 김용환 <토끼전-아협그림애기책 제7집>(1947. 8. 27.)
- <로빈슨크루소-아협그림애기책 제8집>(1947. 12. 5)
- 조풍연 글, 김의환 작화 <왕자와 부하들-아협그림애기책 제9집>(1948. 3. 27)
- 조복성 <곤충이야기-아협그림애기책 제10집> (1948. 7. 20)
- 정현웅 <꿈나라의 아리쓰-아협그림애기책>(1948. 11. 30.)
- 아미치쓰 지음, 이영철 번역 <사랑의 학교-아협그림애기책> (1948. 12. 10)
- 아협 <린큰 아협그림애기책 제13집> (1948. 3. 27)

※ 을유문화사 <을유문화사 50년사>, 을유문화사, 1997, p408~412 재구성

- 소장경위 : 소장자가 제공한 등록신청서에 따르면, 선친 작고 후 서가 정리 중 발견했다고 함.

※ 참고(등록신청서의 기술 내용)

해방 후 선대께서 1946년 부산에서 신생사, 현대사의 출판사를 운영 시 그의 형인 목정 김용환 화백과 함께 만화와 삽화를 많이 그리다 6.25 전쟁 중에는 한국 최초 16mm 성웅 충무공의 해진도와 울릉도를(1952. 10.27) 제작하고 그 후 제주도(1953. 3.20) 또한 경주 신라의 고대수도를 (1953. 7.15) 제작함. 성웅 충무공을 그리는데 상당 부분 역할이 있었으나, 종전 후에는 서울에서 어른의 출판사와 각 출판사에서 만화와 삽화를 그렸다함. 청소년 시절 선대어른의 심부름으로 딱 2번 뵈었는데 미남형으로 곱상하셨던 기억이 남.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어린 예술가(1946년판)

- 동일유형의 기등록 문화재의 경우 <토끼와 원숭이>는 1946년 5월 1일 출간된 해방 이후 최초로 출간된 만화이고, <만화 코주부 삼국지>(1-3)는 초기 그림책 형식에서 말풍선이 등장하고, 칸이 분리된 보다 진보된 형식의 만화이며, 1950년대를 대표하는 인기 만화 단행본이라는 내용적 측면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보관처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산하 한국만화박물관의 수장고여서 연구에 대한 공공적 접근의 효율성과 장기적이고 안정적 보관의 가능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음.
- <어린 예술가>는 최초에 대한 역사적 측면이나 내용적 측면에서도 모두 기등록 문화재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며, 소장자의 측면에서도 공공적 접근이나 안정적 보관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 어린 예술가(1952년판)

- 재판본 <어린 예술가>는 문화재적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짐.

5) 종합의견

- 김의환 저 <어린 예술가> 1946년판은 <플란다스의 개>를 만화화한 작품으로 그림애기책 시리즈 다섯 번째 작품임. 동일 유형의 기등록문화재에 비해 역사적 측면이나 내용적 측면에서 우수성을 찾기 어려움.
- 김의환 저 <어린 예술가> 1952년판은 <플란다스의 개>를 만화화한 작품이며 1946년도 초판본의 재판본으로 문화재로 의미를 찾기 어려움.

<○○○(2017.11.24.)>

1) 현상

○ 어린 예술가(1946년판)

- 앞뒤 표지 제외하고 만화 페이지만 총 32페이지임. 앞표지에는 제목 ‘어린 예술가’ 저자명 ‘김의환’, 출판장소 ‘서울’ 그리고 ‘조선아동문화협회 발행’이라는 항목들이 표기되어있음. 뒷 표지에는 ‘아협 그림애기책 제5집’이라는 설명이 표시되어있음. ‘아협’은 조선아동문화협회를 줄여서 부르는 단어이고, ‘만화책’이 아니라 ‘그림 애기책’이라고 명기한 부분이 눈에 띈. 앞표지의 안쪽 면에는 이 작품의 원작이 ‘프란다스의 개’라는 것을 ‘꾸민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고, 조선에서도 이미 삼십 년전(약 1916년 정도가 됨)에 출판된 적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음. 뒷 표지의 안쪽 면에는 잡지 “주간소학생”에 대한 설명과 주문방법을 알려주고 있음. 또한 이 작품이 발행인은 ‘조선아동문화협회’이지만, 총판매소는 ‘을유 문화사’이고 정가는 15원이라는 사실도 표기하고 있음. 32페이지의 만화는 한 페이지의 왼쪽 편에 세로로 3칸 안에 등장하며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고, 한 페이지의 오른쪽 편에는 설명 및 묘사를 하고 있음. 아직은 모든 텍스트들이 칸 속에 들어가는 현대적인 만화형태는 아니고, 그에 선행하는 방식이기도 함. 뒷표지에는 조선아동문화협회의 로고도 표시되어있음

	
앞표지	앞표지 안면 및 1페이지
	
뒷표지	6-7페이지

○ 어린 예술가(1952년판)

- 앞뒤 표지 제외하고 만화페이지만 총 32페이지임. 책 전체의 오른쪽 면이 약간 손상되어있음. 1946년에 ‘조선아동문화협회’에서 발간했던 ‘아협 그림애기책

제 5집' '어린 예술가'와 내용물은 동일하나 크기는 약간 작은 편임. 크기 이외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우선, 책 전체에 저자명이 표시되어있지 않음. 반면 1946년 판 <어린 예술가>를 출판매했던 을유문화사만 앞표지 가장 아랫부분에 표기되어 있음.

- 뒷표지에는 을유문화사가 발행한 책들이 언급되어있음. <피노치오>, <왕자와 부하들>, <로빈슨 크루소>, <보물섬>, <어린 예술가>임. 이 중에서 '그림애기책'이라고 표기되어있는 것은 <로빈슨 크루소>, <보물섬>, <어린 예술가>이며 이 세권은 모두 각권 2,000원이라고 적시하고 있음. <피노치오>, <왕자와 부하들>은 각기 '미국모험소설', '세계동화집'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가격도 2,500원인 것으로 보아 아동소설로 보임.

	
앞표지	앞표지 안면 및 1 페이지
	
뒷표지	2-3 페이지

- 박기준 만화작가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출판물들 중에서는 용지와 인쇄도 제일 좋았고, 쪽수도 32쪽으로 많았다. 표지 장정도 일정했고 판형도 4×6판에 아동집 문고라는 예쁜 마크까지 붙어 있었다. 이 아동집 문고는 <을유문화사>가 타 만화와 차별화하여 당대 최고 수준의 만화가들에게만 청탁한 만화만 모아 놓은 것이었다. 1948년에는 <아협문고>에서 김용환의 <보물섬> <손오공> <홍부와 놀부>, 김의환의 <어린 예술가> <피터팬>, 그리고 정현웅의 <로빈슨 크루소> <15소년 표류기> 등 국내외 명작 시리즈가 6,7권 출간되었는데, 출간과 동시에 불티나게 팔렸던 베스트셀러들로 손꼽힌다. 이 작품들은 지금도

일본 최고의 만화 작품들과 비교해 보아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졌던 출판사 책들의 틈새시장을 비집고 영세업자들이 만드는 허술한 책들이 시중에 떠돌기 시작했다. <을유문화사>가 사정상의 이유로 중도에서 만화출간을 포기하자 영세 출판사들이 대거 등장하여 너도나도 경쟁에 돌입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http://www.komacn.kr/dmk/manhwazine/zine_view.asp?CateCode=3340010&Seq=2342)

- 박기준의 서술 및 만화인 검색에 따르면, 뒷표지에 나와 있는 작품 중, 소설 <피노치오>, <왕자와 부하들> 의 삽화는 김의환의,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는 정현웅의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임. 박기준은 <을유문화사>가 사정상 만화출간을 포기한 후 허술한 서적들이 떠돌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현재의 <어린 예술가>는 1948년의 만화책을 4년 뒤 그대로 출간하면서 작가 명을 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았을 때, 허술한 서적들의 유행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

2) 내용 및 특징

- 전형적인 만화체라기보다는 간략한 소설일러스트에 더 가까운 느낌을 주기도 함. <프란시스 개>라는 작품을 32페이지에 요약하고, 포커스를 주인공인 네로에 맞춘다는 의미로 ‘어린 예술가’라고 붙인 부분이 흥미로움.

3) 문헌자료

- 박기준, ‘사진으로 보는 만화야사’ 온라인 연재물
http://www.komacn.kr/dmk/manhwazine/zine_view.asp?CateCode=3340010&Seq=2342
- 만화인명정보 <http://www.komacn.kr/search/search.asp>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초기 한국만화의 대표작가 중의 한 명인 김의환(1912년 이후-형인 김용환이 1912년이나 김의환의 경우 출생년도가 밝혀지지 않음)은 삽화가 및 만화가로 알려져 있음. 아홉 그림애기책 시리즈 중 5번째 권인 <어린 예술가> 및 소설 <피노치오>, <왕자와 부하들>의 삽화가로 알려져 있음
- 만화책은 기본 성격이 복제물이므로, 단행본 한 작품에 대해서만 등록문화재로 선정하기엔 어려움이 따름. <토끼와 원숭이>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었고, 게다가 최초의 만화 단행본이기에 등록문화재로 선정된 반면, <어린 예술가>는 첫 번째 만화 단행본도 아니고, 향후 이러한 만화책이 또 등장할 수도 있어(유일무이한 작품이 아니라는 점), 등록문화재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어린 예술가 1952년판은 김의환의 작품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저자명을 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화재로써의 진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5) 종합의견

- 문화재 등록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음

7.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종합정비계획(재정비)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종합정비 계획의 재정비(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대문구에서는 2009년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동 계획에 대한 보완 정비를 하였으며 동 보완 정비 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사안을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서울 서대문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사적 제324호, '88.02.27 지정)
 - 소 재 지 :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 (당해 문화재 구역)
 - 신청내용 : 종합정비계획의 재정비(안) 적정성 등 검토

< 주 요 내 용 >

- 사적지 확대 지정 : 현행) 28,112㎡ → 변경) 54,919㎡ (증 26,807㎡)
 - * 1936년 당시 형무소 배치도 기준으로 사적지 영역 확대(외곽담장기초 확인)
- 유적 발굴 : 확장된 사적지 내 문화재발굴조사 시행
 - * 구치감과 옥사 및 공장·병감 권역
- 유적 복원 : 상징적 건물 등의 원형복원과 터의 체계적 보존
 - * 복원 : 구치감 및 부속창고, 의무실, 병감, 공장 등의 선별적 복원
- 소요예산 : 약 610억원 (10년 장기 복원정비)
 - * 발굴, 부지 및 터 정비, 건물 및 담장 복원, 건물 내부 복원, 추모권역 조성 등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사적 확대 지정 등 각 분야별 별도 검토
 - 주변 여건을 고려한 종합정비 계획 보완 필요
- 출석 8명/ 조건부가결 8명

8. 등록 제707호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등록 제707호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의 지붕과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석면 슬레이트 철거’를 목적으로 현상변경 신고된 사항을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의 석면 슬레이트(지붕, 벽면 설치)를 철거하기 위한 현상변경 신고사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자 함
- 석면 슬레이트 철거, 임시 가설 지붕재 및 벽체의 재료 및 색상, 정식 시설하고자 하는 지붕과 벽체 마감재 등의 적정성

* (참고) 슬레이트 철거추진 배경

- 2017.2. 인근 재개발조합 민원에 따라 목포시청이 석면슬레이트 철거요청
- 2017년 환경부 국정감사 시 조선내화 목포공장 석면슬레이트 철거이행 약속
- 2018.3월까지 전체 슬레이트 철거 예정

다. 주요내용

- (1) 신 고 인 : 조선내화(주) (대표 ○○○)
- (2) 대상문화재명 :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등록 제707호, 2017.12.05)
 - 소 재 지 : 전라남도 목포시 온금동 122-6외
- (3) 신고내용
 - 대상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온금동 122-6외 (당해 문화재)
 - 신고내용 :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정비

<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정비계획 >

구분		가동 (공장 A동)	나동 (공장 B동)	다동 (공장 C동)	라동 (사무동)	마동 (주택동)
지붕	현황	석면슬레이트 412㎡	석면슬레이트 4,599㎡	석면슬레이트 2,366㎡	석면슬레이트 208㎡	석면슬레이트 199㎡
	철거	석면슬레이트 412㎡ (‘17.10 철거완료)	석면슬레이트 3,540㎡ (‘17.10 1,059㎡ 철거완료)	석면슬레이트 2,263㎡ (103㎡ 기 멸실됨)	석면슬레이트 208㎡	석면슬레이트 199㎡
	정비	무석면슬레이트 또는 칼라강판 412㎡	무석면슬레이트 또는 칼라강판 4,599㎡	무석면슬레이트 또는 칼라강판 2,366㎡	무석면슬레이트 또는 칼라강판 208㎡	무석면슬레이트 또는 칼라강판 199㎡
벽체	현황	석면슬레이트 264㎡	석면슬레이트 342㎡	석면슬레이트 1,894㎡	-	-
	철거	석면슬레이트 264㎡	석면슬레이트 342㎡	석면슬레이트 1,345㎡ (549㎡ 기 멸실됨)	-	-
	정비	무석면슬레이트 또는 칼라강판 264㎡	무석면슬레이트 또는 칼라강판 342㎡	무석면슬레이트 또는 칼라강판 1,894㎡	-	-

< 이후 일정계획 >

- ① ~ ’18.3 : 지붕과 벽체의 석면 슬레이트 철거 (관계 당국의 철거명령 이행 사안)
- ② ’18.4월~’18.12월
 - 임시 가설 마감재 설치 (지붕 및 벽체 - PE천막 또는 PVC타포린)
 - 문화재 보존·활용 종합정비계획 용역 추진 (지붕 및 벽체의 마감재 선정 연구 포함)
- ③ ’19.01월 이후 : 지붕 및 벽체 마감재 시공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안전사고 유의한 철거 공사 시행
- 출석 8명/ 원안가결 8명

보 고 사 항

9. 현상변경 신청사항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사적 및 등록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일자
「익산 나바위 성당」 (사적318)	전북 익산	익산 시장	가. 허가받는자 : 익산시장 나. 허가사항 ○ 대상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158번지 6호(당해 문화재) ○ 허가내용:투어스탬프 거치대 설치 - 수량 : 1개 - 규모 : 32cm*33cm*120cm - 재질 :철재 다. 허가조건 ○ 신청 계획서와 같은 장소에 시설하되 기 시설되어 있는 소화전, 안내판, 휴게벤치 등의 활용에 저해되지 않은 위치로 조정 설치하도록 함 라. 허가기간 2018-01-22 부터 2018-03-22	허가	'18.1.19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일자
「구 대구 의학 전문 학교 본관」 (사적442)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장	가. 허가받는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장 나. 허가사항 ○ 대상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80(당해 문화재) ○ 허가내용 : 건물 명판 교체 (당초)원형명판 「경북대학교의학전문대학」 - 재질:스테인레스,아크릴명판 - 규격:직경110cm 두께 15cm (변경) 직사각형 「KNU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 재질:알루미늄 문자채널 - 규격:가로474cm 세로70cm 다. 허가기간 2018-01-22부터2018-06-30	허가	‘18.1.19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8명/ 원안접수 8명

10. 항일독립유산 문화재 등록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시·장소) '18. 1. 10.(수), 14:00~16:00, 국립고궁박물관 소회의실
- (참석) ○○○, ○○○, ○○○, ○○○, ○○○, ○○○, ○○○, ○○○, ○○○
 - * 근대문화재과장,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5명)
- (내용)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추천 및 자체 발굴 항일독립유산에 대한 문화재 등록 검토조사 대상 선정, 등록기준안 검토

□ 회의결과

- 문화재 등록 검토조사 대상 유물 선정 : 18건
 - (동산 분야) '임시의정원 문서' 포함 항일독립 관련 문서류 등 9건
 - (건축·시설물 분야) '완도 소안 당사도 등대' 등 항일독립유적 9건
 - * 기타 검토대상 : 동산 32건 (제천의병전시관 15, 독립기념관 추천 목록 17)
 - 별도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유물 전반 검토 및 등록 추진 예정
- (등록기준안) 항일독립운동분야 목록화 조사('14년, 문화재청) 연구결과와 「문화재 등록에 관한 지침(예규 제187호)」의 등록기준안에 이견 없음

□ 향후계획

- 문화재 등록 검토조사 계획 수립 및 전문가 조사 실시('18. 1월~)
- 문화재위원회 상정 및 문화재 등록 추진('18. 2월~'19. 3월)
 - * 임시정부 관련 유물 등은 면밀한 검토 등을 위해 목록화조사 용역 추진 검토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8명/ 원안접수 8명

붙임1

문화재 등록 검토조사 대상 선정 유물 현황

□ 동산 분야 (9건)

연번	유 물 명	유물 특징	소유자	소재지
1	임시의정원 문서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한 홍진 선생이 1967년 국회에 기증한 임시의정원 회의록 및 속기록과 임시정부 기록물(총 1,252장 / 2,350면)	국회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도서관
2	임시헌법 및 임시정부 관련 법령집 (1919. 9월)	이승만 전대통령이 보존한 기록물(이화장 문서, 국가지정기록물 3호로 지정) 15만여건 중 하나로 현재 연세대에서 관리 중	연세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3	건국강령(1941) 및 조소앙 선생 관련 유산	임시정부 임시헌장 및 임시헌법 등을 기초한 조소앙 선생이 중심이 되어 제정되어 '44년 임시헌장으로 법제화 되었고, '48년 제헌회의의 기초가 됨(3장 22개조). 광복의 실천방법과 건국에 따르는 민주적 절차와 제도적 원칙을 규정	조소앙 선생 유족	경기도 양주시 남면 양연로 173번길 87 회암사 등
4	윤동주육필원고	윤동주시인의 육필원고로 시집 4권, 산문집 1권, 기타 낱장 15매로, 2013년 유족들이 연세대에 기증하여 보관되고 있음	연세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5	이육사육필원고 (편복)	항일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이육사의 시 관련 유일한 육필원고로, 현재 안동의 이육사 문학관에서 보관중	이육사문학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백운로 525 이육사문학관
6	서간도시종기 (1966)	항일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부인 이은숙 선생의 회고록. 1910년 국권상장 이후 서간도 이주 이후 독립운동기지를 만들어가는 과정 및 이회영 일가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내역을 기술	개인(이종찬)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 우당기념관
7	혁명반려 (서예작품)	독립운동가 이재현 지사(1917~1997, 애족장)의 혼례를 기념하여 1948년 김구 선생의 친필회호	개인(이형진)	안양시 만안구 예술평원로 208
8	호양학교 동종	구한말(1908년 경) 일제강점기 애국지사인 매천 황현선생이 후학을 양성했다던 민족주의 신문화학교인 호양학교에서 사용한 학교 종	전라남도 구례교육지원청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2길 21
9	최익현과 의병장 12인 후송도 및 포창완의문	1906년 태인의병에 12의사로 참여한 경당 임현주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는 의병관련 유물. <최익현(대한민국장)과 의병장 12인 후송도>는 작자 미상으로 어느 기차역에서 압송되기 직전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며, <포창완의문>은 1924년 2월에 작성된 것으로 경당 임현주(1858-1934)의 의병활동과 충의를 찬양한 내용	개인(임병곤)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남골목2길 14

□ 건축시설물 분야 (9건)

연번	유 물 명	유물 특징	소유자	소재지
1	애국지사 한백봉 선생 묘역	성남지역 만세운동과 신간회 운동을 주도한 한백봉(애족장) 선생의 묘역	개인(한동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문정로 145(울동공원 내)
2	애국지사 한순희 선생 묘역	성남지역 만세운동과 신간회 운동을 주도한 한순희 선생의 묘역	개인(한동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문정로 145(울동공원 내)
3	애국지사 윤치장 선생 묘역	성남에서 의병을 일으켜 허위 이강년(애족장) 의병진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성남의 의병장인 윤치장 선생의 묘역	개인(윤교상)	경기도 성남시 달래대로 221번길 16
4	백강 조경한 가옥	임시정부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로 한국독립당, 민족혁명당, 조선혁명당 등의 창당에 참여하며 항일투쟁을 벌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 및 국무위원으로 활약한 백강 조경한(독립장)의 생가. 안채, 사랑채, 내삼문 3채가 잔존하고 있으나 개보수로 일부 변형	개인(조지환)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한국길 25(한동마을)
5	애국지사 매천 황현 묘역	애국지사 매천 황현 선생(독립장)의 묘역으로 1942년 구례에서 광양으로 이장된 이후 2010년 광양시 주최 「매천 황현 선생 순국 100주년 추모사업」 관련 묘역을 정비하여 보존상태는 매우 좋음	장수황씨 종중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산59-1
6	소송 정재건 순절지	정재건은 곡성 출신의 독립유공자 20여 명 중에서 경술국치에 항거하여 순절한 정재건의 순절지로 그가 일제의 병탄에 항거하며 자결한 가옥이 현재까지 거의 원형대로 보존	개인(정증원)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약천리 377
7	완도 소안 당사도 등대	완도군의 최남단 도서인 소안면 당사도에 위치 등대로 제1등대(1909년 건립), 제2등대(2008년 건립) 구성. 제1등대는 1909년 일제강점기에 처음 불을 밝혔으며 조선에서 수탈한 농산물 등을 일본으로 운반하는 배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파악한 소안도의 이준화와 5명의 의병들이 1909년 2월 24일 등대를 습격하여 일본 등대 간수 4명을 타살하고 주요 시설물을 파괴하는 의거를 감행하여 일제의 수탈을 막았다.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길 17-239
8	완도 소안 항일운동 유적	소안도는 함경북도 북청, 경상남도 동래 등과 함께 일제강점기 때 전국에서 항일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전개됐던 3곳 중 한곳으로 1920년대에는 4천여 명의 주민 중 800명 이상이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혐의를 받아 일제의 감시와 통제를 받음. 사립 소안학교, 항일운동탑, 항일운동기념관, 전시유물(창가집, 소안학교 수업증서 등)	(사)소안항일운동기념사업회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소안로 263
9	완도 신지 항일운동 유적	신지 항일운동 기념탑(1994년 건립,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및 자료관 및 기념공원	(사)신지항일운동기념사업회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584

□ 기타 검토대상 [동산 32건] ▶ 제천의병전시관(15), 독립기념관(17)

연번	유 물 명	유물 특징	소유자	소재지
1	운강집 (雲崗集)	한말의 의병장인 운강 이강년(대통령장의 유고를 정리한 서책으로 한말 대표적인 의병장인 운강 이강년의 유고를 비롯하여 한말 의병활동을 기록한 저술로 한일 의병자료 중 독보적인 자료	제천시청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의암로 566-7 제천의병전시관
2	의암집 (毅菴集)	1895년 을미의병 당시 큰 역할을 했던 의암 유인석의 문집으로 의병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 1917년 민주의 회인회에서 문인 이직신, 백삼규 등이 중심이 되어 간행	"	"
3	의암선생행장 (毅菴先生行狀)	1895년 을미의병 당시 큰 역할을 했던 의암 유인석의 행장, 1939년 이정규가 편찬한 것으로 영인본 의암집에 수록되기 전 초고본으로 교열과정에서 삭제된 구절이 남아있음	"	"
4	초본(初本)	의암선생연보의 초본으로 의암집에 영인된 연보와 비교해보면 일부 내용에서는 오히려 자세히 언급되어 있어 유인석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임	"	"
5	종의록(從義錄)	이정규가 지은 1895년 제천의병 거의에서 1908년 7월 연해주로 항할 때까지 유인석을 중심으로 한 의병전쟁사, 1895년 제천의병의 거의에서 1908년 7월 연해주로 항할 때까지 유인석을 중심으로 한 의병사 자료임	"	"
6	의병사시말	을미년 명성황후 사해에서부터 서상열의 전사까지 다룬 순환글 의병기록, 1895년 의병의 초기 거의와 1896년 4월 제천 남산전투까지의 의병 행적과 관련하여 그 역할이나 의의 등을 자세히 기록	"	"
7	관일약 (貫一約)	관일약, 약원록, 임원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3책, 애국(愛國), 애도(愛道), 애신(愛身), 애인(愛人)을 기억하고 한가지 마음으로 관일하려는 목적에서 유인석이 향약의 조직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규약, 1909년 최초 시행됨	"	"
8	관일약원록 (貫一約員錄)	관일약에 가입된 인원에 대한 목록, 1909년 이후 계속 추가가 입이 있어 1912년까지 총 121명의 약원을 거느린 조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음, 연해주에 망명해 있던 다양한 지역과 계통에서 모인 의병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	"	"
9	관일약임원록 (貫一約任員錄)	1909년 7월 설악시 별유사는 유인석이며 실무적인 시행을 담당한 장의는 이남기임을 알 수 있는 등 당시 의병활동의 중심 인물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음, 당시 의병활동을 한 중심인물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	"
10	안공하사실기대략 (安公下沙實記大略)	박정수가 편찬한 초본으로 보이며, 을미의병의 행적을 시간 단위로 세밀히 기록함으로써 제천의병의 발단과 초기 진행과정에 대한 상황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귀중한 자료임	"	"
11	하사실기 (下沙實記)	하사 안승우(독립장)가 전사한 후 스승과 사위들이 쓴 조제문, 만사, 뇌사를 모은 책, 하사 안승우가 전사한 후 스승과 사위들이 쓴 조제문, 만사, 뇌사를 모은 책으로 제천의병 인물의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	"
12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박정수가 편찬했고, 제천의병이 거병한 이후 전개과정을 중군장이었던 안승우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술한 책, 1895년 을미년에 거의한 제천의병의 행적을 하사 안승우를 중심으로 기술된 자료로 제천의병의 활동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	"
13	하사안공행장 (下沙安公行狀)	초기 의병장 안승우(애족장)의 행장과 묘갈명을 수록한 책, 초기 제천의병의 의병장이었던 하사 안승우의 행장과 묘갈명을 수록한 책으로 의병 인물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	"	"
14	하사유고 (下沙遺稿)	의병장 안승우(애족장)의 유고, 제문, 서, 서증, 시, 어록이 수록	"	"
15	척화거의사실대략 (斥和舉義事實大略)	습재 이직신이 편찬한 제천의병관련 거의록, 1898년 가을 작성했으며 1900년 요동에서 등출했다는 기록이 있음	"	"
16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내빈 서명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典禮式)에 참석한 내외귀빈의 서명자 명단	독립기념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17	한국독립선언 24주년 기념 내빈 제명	1944년 중국 충경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부장 조소앙이 개최한 3.1절 24주년 기념 연회에 참석한 내빈자인 김가국, 이청천, 장수약, 장지강 등 총 20명의 제명이다	"	"

연번	유 물 명	유물 특징	소유자	소재지
18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기념 서명포(旅渝同志題名紀念)	1945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하기 전에 감회를 적은 글이다. 윤기섭·장건상·신익희·김구 등이 환국하기 전에 자신의 소감을 적어 놓은 것으로, 화형 건국 자강 불식 등의 구호가 적혀 있다	독립기념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19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기념 서명포(留渝同人師友題名)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김구 이하 20여 명의 영수가 1945년 11월 4일 환국하기 위해 중국 중경(重慶)을 출발하면서 친필로 서명한 서명포	"	"
20	사료집(史料集) 1(1919)	상해 임시정부의 명을 받아 1919년 8월 춘원 이광수가 편찬한 국제연맹 제출 한·일 관계 사료집 제1권이다. 주요 내용은 한일관계사를 연대별로 크게 삼국시대부터 한일조약 체결까지 다루어 서술하고 있다	"	"
21	사료집(史料集) 2(1919)	상해 임시정부의 명을 받아 1919년 8월 춘원 이광수가 편찬한 국제연맹 제출 한·일관계 사료집 제2권이다. 1, 민족과 국민성의 차이부터 7, 종교탄압까지 서술하고 있다	"	"
22	사료집(史料集) 3(1919)	상해 임시정부의 명을 받아 1919년 8월 춘원 이광수가 편찬한 국제연맹 제출 한·일관계 사료집 제3권이다. '관공서의 한인 차별', '동양척식회사', '회사령과 조합규칙', '조선인 사유재산의 감시' 등과 기타 사법·행정·교육·경찰 등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	"
23	사료집(史料集) 4(1919)	상해 임시정부의 명을 받아 1919년 8월 춘원 이광수가 편찬한 국제연맹 제출 한·일 관계 사료집 제4권이다. 1919년 3·1 독립운동의 역사적 원인과 전개과정, 3·1운동관련서류, 운동 일람표 등을 서술하고 있다	"	"
24	도산 안창호 일기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의 일기이다. 일기의 체제는 월, 일, 날씨를 기록하고, 그날의 예정사항 및 사건을 시간·주제별로 기록하고 있다. 이승만(李承晩)과 이동휘(李東輝) 등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성원과의 내분을 해결하려는 활동이 주된 내용이다	"	"
25	관동창의록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난 후 강릉에서 의병 전투를 주도한 민용호(閔甬鎬 1869~1922)의 창의(倡義) 일기이다	"	"
26	장효근 일기(1916~1945)	손병희(孫秉熙)의 수행비서를 지낸 독립운동가이며 동학교도이며 언론인인 한말의 지사 동암(東庵) 장효근(張孝楹)이 30년간 기록해 놓은 일기이다. 1916년부터 1946년까지 30년간 쉬지 않고 기록해 놓은 한문체의 개인일기이다	"	"
27	기려수필(騎驢隨筆)	송상도(宋相勳)가 대한제국 말기부터 광복까지 애국지사들의 사적을 기록한 것이다. 1866년(고종 3) 병인양요 때 순절한 이시원(李是淵)의 사적으로부터 시작하여 항일투사 239명의 행적을 기록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공산당·고려혁명당·6·10 만세·광주학생독립운동 등의 단체 및 사건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	"
28	김정규 일기	의병장 용연 김정규(金鼎奎)가 1907년 2월 16일부터 1921년 10월 17일까지 쓴 국내외 의병 및 독립군의 활동상을 기록한 일기이다	"	"
29	마도일기	1906년 홍주의병에 서기로 참여하였던 운초(雲樵) 문석환(文奭煥)이 일본 대마도에 유배되어 있던 시기에 기록한 일기. 총360면 필사본 1책	"	"
30	윤봉춘 일기	일제하 항일운동의 일환으로 영화를 제작한 윤봉춘의 1935년~1937년까지의 일기이다. 그는 아리랑의 제작자인 나운규와 동향인 함북 회령출신이다. 회령신흥보통학교 고등과에서 만난 이들은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발각되어 나운규는 복간도로 망명하였고 윤봉춘은 청진형무소에 수감생활을 하였다	"	"
31	덕춘수록(엄재야록)	한말의 학자 조희제(趙熙濟)가 1895년 을미사변 이후부터 1918년까지 애국투사들의 절의실적(節義實蹟)을 모아 전기체로 서술한 야사(野史)이다	"	"
32	면암선생사실기	1933년 1월 9일 관한소가 감직한 선비인 동시에 의병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면암 최악현(1833~1907)의 일대기를 순한글 운문체로 띄어쓰기 없이 모필로 전사한 것이다	"	"

※ 제천의병전시관, 독립기념관 추천 목록은 별도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유물 전반 검토 및 등록 추진 예정

□ 항일독립유산 목록화조사 연구결과 등

구 분	내 용
유물 등(동산)	○ 항일독립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음의 유물 가운데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높거나 희귀한 것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한 것 - 독립운동가가 사용하였던 유품이나 유묵 - 독립운동가가 형무소에서 남긴 문서류 등 - 주요한 독립운동 단체가 생산하였거나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
유적 등(시설/건축물)	○ 항일독립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인물 및 중요 사건 등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건축물 등 유적으로서 기념할 만한 가치가 높은 것 또는 희소성을 있는 것 - 중요한 사건 배경이 되는 역사적 장소 - 항일독립운동 관련 주요 인물의 생가, 묘소, 가옥, 기념물 등
고려사항	○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문화재등록에 관한 지침’에 따른 문화재 등록에 대한 가치가 있을 것 - 독립운동의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널리 알려진 것 - 유물, 유적이 친일행위 인물과 관련된 경우 철저한 고증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수탈, 친일 논란 인물 등과 관련된 문화재는 해당 인물의 공과, 역사적 교훈 등을 종합적 평가

□ 「문화재 등록에 관한 지침」 (제정 2017. 12. 28. 문화재청 예규 제187호)

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근현대 문화재에 대한 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근현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동 지침은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등록 신청한 문화재와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는 개항기부터 건설·제작·형성되어, 등록 신청일 현재 50년 이상이 지난 근현대 시기의 문화재를 말한다. 다만,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급격한 환경변화나 개발 등으로 멸실·훼손 우려가 있거나, 효과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문화재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등록 대상 문화재는 국내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적용절차)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대상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은 전문가는 동 지침의 등록 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통기준) ①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상 문화유산이 역사·문화·예술·사회·정치·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다음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어느 하나 이상의 등록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제4호에 따른 가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역사적 가치

개항기 이후 각 분야의 변화·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항일독립운동과 해방 후 민주화 및 산업화 등의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을 것

2. 학술적 가치

각 분야의 변화·발전에 기여한 성과물로서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어 관련 분야 연구에 학술적으로 가치가 클 것

3. 예술적 가치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독창적이면서 예술적 완성도가 높고 그 분야에서 대표성이 있을 것

4. 원형유지 및 희소성

대상 문화재가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희소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대성이나 독창성 없이 전통 양식이나 외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였거나, 진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2. 보수·복원·정비 등으로 본래의 문화재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3.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문화재의 출처와 소장 경위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작자와 제작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라도 문화재 등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 등

제5조(유사한 양식의 시설·건축물) 유사하거나 동일한 양식의 시설·건축물이 다수 존재할 경우, 대상 시설·건축물이 각각의 지역에서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제6조(반복 또는 다량 제작·형성된 문화재) ① 인쇄·출판, 산업·과학 분야의 기술 발달 또는 외래 기술의 도입 등으로 반복 또는 다량 제작·생산·형성된 문화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문화재를 등록 대상으로 한다.

1. 출판물 등 동일본·유사본이 다수 존재 가능한 경우

- 가.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초판본을 대상으로 하며, 초판본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이른 시기에 출판한 것
- 나. 연속간행물의 경우에는 원질본을 대상으로 하며, 원질본이 없는 경우 일부 결본이 있더라도 희소성이 있는 것
- 다. 전적의 경우,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는 때에는 디자인, 분량 등이 다르더라도 같은 것으로 보며, 이 중 제작 시기가 가장 이른 것

2. 산업·과학 분야 제품, 기계, 시설 등과 관련된 경우

- 가. 각 분야에서 연구개발이나 외래기술의 수용을 통해 국내에서 자체 생산·제조한 최초의 것으로 상징성이 있는 것
- 나. 국내에서 자체 생산·제조한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최초로 국내에 도입되어 산업 및 과학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상징성이 있는 제품·기계·시설 등
- 다. 각 분야에서 단종된 제품으로서 국민의 의식주 생활의 변화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상징적 의미가 있는 처음으로 생산된 제품, 대상 제품이나 소유자가 다수일 때는 가장 상징성이 있는 것
- 라. 위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서 제품의 주요기능이 정상 작동하거나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르더라도 동일·유사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문화재가 박물관, 도서관 등에 다수 소장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개인이 다수 소장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잔존 수량의 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문화재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기념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① 국내에서 개최된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의 행사, 사건 등과 관련하여 가치가 부여된 문화재 중 각 분야별로 특별한 가치를 지니거나 역사적 상징성이 큰 것으로서 국민적으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일반에게 널리 인정되는 것은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국외에서 개최된 국제적 행사에서 우리 국민이 획득하거나 수여받은 상징물 및 관련 문화재 중 제1항에 따른 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등록 대상 상징물 및 관련 문화재는 해당 행사와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8조(역사적 사건·인물과 관련된 문화재) ① 항일독립운동 등 우리나라의 독립과 사회의 변화 및 발전과정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문화재의 경우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인물이 거주·사용한 이력 등이 문헌 기록, 관련자 증언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② 일제강점기 수탈, 친일 논란 인물 등과 관련된 문화재는 문화재적 가치와 해당 인물의 공과(功過), 역사적 교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제4조제2항제4호에 해당될 경우 등록을 보류할 수 있다.

제9조(동일인이 설계·제작한 문화재) ① 각 분야에서 대표적 예술가, 건축가, 제작자 등 동일인이 설계·제작한 시설·건축물, 동산 문화재 등이 다수 현존할 때에는 가장 대표적이거나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전수 조사나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등록 평가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해당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보류할 수 있다.

제10조(생존인물 관련 문화재) ① 문화재 등록신청 시 생존해 있는 인물이 설계·제작한 시설·건축물이나 예술작품 등의 문화재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등록가치가 있는 문화재로서 등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하면 멸실·훼손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문화재의 일괄·추가 등록) ① 유사한 성격의 문화재가 한 곳에 집중하여 소재하고 있거나 역사적 인물 등과 관련된 문화재가 복수인 경우,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개별 문화재는 각각 제4조에 따른 등록가치가 있어야 한다.

② 이미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와 동일한 성격의 문화재가 제4조에 따른 등록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등록문화재는 이 지침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2조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